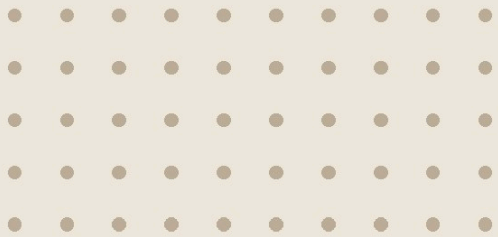
하루 한 장,
창세기

쉰 날 동안 읽는 창세기 묵상



김동오

하루 한 장, 창세기

쉰 날 동안 읽는 창세기 묵상

김동오

2026

차례

서문

쉰 날을 함께 걷습니다

창세기는 쉰 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쉰 날이 걸립니다. 이 책은 그 쉰 날을 곁에서 함께 걷기 위해 썼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멈춘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습니다. 새해 첫 주에 창조와 홍수를 지나고, 족보가 나오는 어디쯤에서 책갈피가 멈춥니다. 다음 해에도 1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앞부분만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 집집마다 있습니다. 읽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읽기에는 길이 멀고, 읽은 말씀이 오늘 내 하루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잡히지 않아서입니다.

이 책에 실린 글은 성실나눔교회 새벽 강단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 7월 6일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해 쉰 번의 새벽 동안 하루 한 장씩 전한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한 말을 혼자 읽는 자리에 맞게 다시 다듬었습니다. 듣는 글과 읽는 글은 호흡이 다릅니다. 회중을 부르는 말을 덜었고 문장을 짧게 끊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아이를 재운 밤 식탁에서도 오 분이면 한 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한 가지를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창세기에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앞에서 자기 허물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허물을 감추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약속을 끝까지 이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날마다 그 장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 주셨습니다(눅 24:27).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창세기를 읽습니다.

쉰 날을 다 걸으신 뒤에는, 창세기가 끝나는 자리가 실은 긴 기다림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을 펴는 아침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가을 성실나눔교회 목사 김동오

이 책을 읽는 법

하루에 한 편만 읽으십시오. 한 편은 창세기 한 장입니다. 제1일이 창세기 1장, 제50일이 창세기 50장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으십시오. 그 장의 뼈대가 되는 절만 골라 실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성경을 펴서 그 장 전체를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은 성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성경 곁에 펴 놓고 읽는 책입니다.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가 그 장의 흐름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지는 묵상은 본문 순서를 따라가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닿습니다.

「오늘의 적용」은 많아야 셋입니다. 하나뿐인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습니다. 여럿인 날에는 다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만 골라 그날 해 보십시오. 적용이 없는 날은 읽은 말씀을 품고 바로 기도로 가시면 됩니다.

「기도」는 소리 내어 읽으셔도 좋습니다. 자기 말로 바꾸어 드리시면 더 좋습니다.

하루를 놓쳤다고 처음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놓친 날은 그대로 두고 오늘 치를 읽으시면 됩니다. 쉰 날이 예순 날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가정이나 소그룹에서 같은 날 같은 편을 읽고, 고른 적용 하나씩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 책의 성경 본문은 개역개정판을 따랐습니다.

1부 · 처음 이야기

제1일 ·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의 본문

창세기 1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 1장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누가 왕이신가를 선포하는 글입니다. 첫 사흘 동안 하나님은 빛과 어둠, 하늘과 물, 뭍과 바다를 나누어 자리를 만드십니다. 다음 사흘에는 해와 달, 새와 물고기, 짐승과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어지럽던 곳에 질서가 서고 비어 있던 곳이 가득 찹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에 쓰인 히브리어 바라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말입니다. 사람은 만들고 다듬을 수 있지만, 없던 것을 있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소유권 표시를 찍습니다. 내 시간과 몸, 내 가정, 내가 “내 것”이라 부르는 모든 것이 사실은 창조주의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 한 문장을 증명하려 들지 않고 그냥 선포합니다.

2절의 “혼돈하고 공허하며”는 히브리어로 토후 와보후입니다. 소리와 뜻이 어울리는 한 쌍의 표현으로, 황량하게 텅 빈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무너진 성읍을, 예레미야가 심판받은 땅을 같은 말로 묘사한 것을 보면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여기 쓰인 말은 독수리가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품는 모습에도 쓰인 단어입니다. 성령은 혼돈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위를 품으십니다. 인생에 형태가 잡히지 않고 속이 텅 빈 것 같은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수면 위에 계십니다.

말씀이 세계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1장 내내 거듭되는 “이르시되”가 세상을 세웁니다. 3절에서는 말씀과 실현 사이에 아무 간격이 없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다시 읽으며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요 1:1-3). 창세기 1장의 창조자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골 1:16)라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첫날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친 빛과 겹쳐 놓았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후 4:6).

첫 창조를 이루신 그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의 혼돈에도 다시 빛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 자기 형상을 세워 통치권을 표시했는데, 하나님은 조각상 대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26절이 곧바로 “다스리게 하자”로 이어지는 까닭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여기서 옵니다. 능력이 모자라도, 쓸모가 다한 것처럼 보여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형상은 타락으로 훼손되었으나 없어지지 않았고,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골 1:15).

앞에서 거듭되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31절에서는 “심히”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넘치는 선하심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오늘도 그 세계에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의 적용

단체 대화방에서 일로만 대하던 한 사람의 이름을 보고, 오늘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십시오.

기도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제 혼돈 위에 주의 영이 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다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일 · 창세기 2장

흙과 생기, 동산과 언약

오늘의 본문

창세기 2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
>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
>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
>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
>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 1장이 망원경이라면 2장은 현미경입니다. 우주 전체를 훑던 시선이 이제 한 사람과 한 동산으로 좁혀집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 사람의 창조, 그리고 결혼의 제정이 차례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창조주가 곧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쉼에서 출발해 일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지쳐서 쉬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셨기에 멈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창조 기사에서 시간에 복을 주신 것은 이날뿐입니다.

사람이 지음 받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첫 온전한 하루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채워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쉬고, 그 쉼에서 출발해 일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 안식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하며,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흙이면서 동시에 숨입니다

7절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아담과 땅을 뜻하는 아다마는 소리가 겹칩니다.

나는 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입니다. 짐승에게는 이 불어넣으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비천함과 존귀함이 한 문장 안에 함께 있어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자기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장면(요 20:22)은 이 창조의 재현입니다.

동산에 두신 사람

1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 쓰인 두 동사는 훗날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을 가리키는 바로 그 단어들입니다. 에덴은 최초의 성소였고 아담은 그 안에서 섬기는 자였습니다.

일은 타락 이전에 받은 선물입니다. 타락이 보탠 것은 일의 수고로움이었습니다. 오늘 내 일터도 하나님을 섬기고 지키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서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16절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가 먼저 나오고 금령은 그다음이니, 하나님의 세계는 넉넉한 허락으로 시작하는 셈입니다. 다만 경계 하나가 있어야 사람은 피조물로 남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의 자리입니다.

마주 서는 도움

18절의 "돕는 배필"은 그에게 맞갖은, 마주 서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쓰인 '도움'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가장 자주 쓰이는 말이니 열등을 뜻할 리 없습니다.

여자를 본 남자는 노래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24절의 떠나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은 바울에 의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 읽힙니다(엡 5:31-32). 아담의 깊은 잠에서 신부가 나왔듯,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적용

이번 주 하루를 정해 알림을 꺼 두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채우는 두 시간을 달력에 먼저 잡으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도움이 될 일 하나를 손으로 하십시오. 설거지 한 번, 등하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기도

여호와 하나님, 저를 흙으로 지으시고 주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제가 흙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숨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일터를 섬기고 지키는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참 안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일 · 창세기 3장

무너진 자리에 심긴 첫 약속

오늘의 본문

창세기 3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
>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
>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
>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
>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뱀의 유혹과 사람의 불순종, 하나님의 심문과 선고가 이어지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장입니다. 첫 약속은 바로 그 선고 가운데서 나옵니다.

유혹은 말씀을 흔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뱀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 참으로"였습니다.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고 슬쩍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립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와의 대답도 미묘하게 어긋납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원래 없던 말입니다. 뱀은 금령을 부풀렸고 하와는 거기에 말을 보탰습니다.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4절) 하고 정면으로 뒤집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말씀이 먼저 흐려지고, 부정은 그 뒤에 옵니다.

죄의 뿌리는 자리 다툼입니다

뱀은 결국 본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열매는 구실이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정하겠다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6절은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 단계로 보여 줍니다. 보고, 탐하고, 취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이 세 마디를 요한은 훗날 이렇게 묶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 2:16).

눈은 밝아졌으나

뱀의 말대로 눈은 밝아졌습니다(7절). 그러나 그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 자기 모습이 아니라 벗은 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창세기 2장 끝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두 사람입니다. 죄가 맨 먼저 낳은 것은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숨은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을 리 없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걸어 나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물음의 확장이라 해도 좋습니다.

아담의 대답은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원망은 아내를 지나 하나님께까지 닿습니다. 여자는 뱀을 가리킵니다. 두 사람 다 “내가 먹었나이다”는 맨 끝에 가서야 말합니다(12-13절).

선고 속에 심긴 첫 복음

선고는 뱀에게서 시작되는데, 그 뱀에게 내리신 말씀 안에 성경 최초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상하는 것은 치명적이고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회복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상한 자리였고, 바로 거기서 뱀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부활은 그 승리가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갈 4:4). 하나님은 사람이 넘어진 바로 그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선고는 여자와 아담에게로 이어집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아담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과 얼굴의 땀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선물이던 가정과 일이 이제 수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19절)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섰습니다.

이 선고를 들은 아담이 맨 먼저 한 일이 20절에 적혀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릅니다. 본문은 그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을 방금 들은 사람이 아내에게 생명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든 이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 주신 옷

사람은 무화과 잎으로 가렸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잎사귀는 하루면 마릅니다. 가죽옷은 사람을 온전히 덮었고, 그 옷이 있으려면 짐승 하나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타락한 채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일을 막으시려는 것입니다(22절). 그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24절). 그래도 맨몸으로 내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옷을 입고 동산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을 입혀 주십니다(갈 3:27).

오늘의 적용

최근 다툼에서 상대 탓으로 돌렸던 문장을 하나 고르고, 오늘 그중 내 몫 한 가지를 인정해 말하십시오.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다듬느라 애쓰는 자리를 하나 떠올리고, 오늘 하루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로 그 자리에 서십시오.

기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 앞에 숨지 않고 나아갑니다. 제 죄를 스스로 가리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를 위해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입혀 주신 옷을 입고 오늘 하루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일 · 창세기 4장

문 앞에 엎드린 죄

오늘의 본문

창세기 4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
>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
>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
>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
>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에덴 밖에서 인류의 첫 세대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4장은 그 무너짐이 사람과 사람 사이로 번지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두 제사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문제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곡물 제사도 나중에 율법이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차이는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처음 것입니다. 본문은 또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사람을 앞에 적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먼저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도 같은 곳을 짚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7절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맹수가 먹이를 노리며 웅크린 자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십니다. 마음속 생각이 밖으로 열매 맺기 전에 붙들어 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한 가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고, 살인 이전에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가인의 문 앞에는 죄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도 와 있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들에 있을 때에 아우를 쳐죽입니다(8절).

창세기 3장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던 물음이 이웃과의 관계를 묻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가인의 대답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변명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기 '지키는 자'는 아담이 동산을 지키게 하실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지키라고 세우신 자가 지킴을 거부한 것입니다.

땅에서 아벨의 피가 호소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고 증언합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를 부르짖었으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를 선포합니다.

두 계보, 두 노래

가인은 성을 쌓았고 그 후손들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살인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것은 살려 두시려는 보호의 표였는데, 라멕은 그것을 복수의 셈법으로 뒤집었습니다. 죄는 세대를 거치며 커졌고 이제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마 18:22) 용서하라 하신 말씀은 이 라멕의 노래를 정면으로 뒤집는 복음의 셈법입니다.

4장은 다른 집에서 닫힙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합니다. 성을 쌓고 악기와 연장을 만드는 소란한 문명 곁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의 적용

이번 달 헌금과 시간과 체력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첫 것이었는지 남은 것이었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십시오.

내 문 앞에 웅크린 죄에 이름을 붙이고, 오늘 차단 장치 하나를 세우십시오. 앱을 지우든 시간대를 옮기든 손에 잡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채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에게 오늘 안부 한 줄을 보내십시오.

기도

주여, 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 앞에 웅크린 죄를 다스릴 힘을 주시고, 형제를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5일 · 창세기 5장

죽었더라, 그러나 동행하였더라

오늘의 본문

창세기 5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3절**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
> **22절**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
>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
>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아담에서 노아까지 열 세대의 족보입니다. 이름과 숫자의 나열 같지만,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여덟 번 울리고, 그 행렬이 딱 한 번 끊깁니다.

이어지는 형상, 이어지는 죽음

1절과 2절은 창조 기사를 다시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선언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그 형상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3절이 표현을 바꿉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지되, 이제 타락한 아담의 모양을 함께 지니고 흐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죽음도 그 흐름을 따라 대를 잇습니다. 가장 오래 산 므두셀라의 969년도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햇수를 따져 보면 그가 죽은 해가 홍수의 해와 맞물립니다. 심판은 그 긴 세월을 기다리신 뒤에야 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주의 오래 참으심(벧후 3:9)이 이 숫자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동행하였더라

에녹의 기록만 다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 동행하다’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걷는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그가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동행했다고 적습니다. 자녀를 얻은 후에 신앙이 깊어졌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다고 증언합니다(히 11:5). 그 동행을 가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을 데려가신 손이 먼저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족보 끝에서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는 것입니다. 노아 자신이 저주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참된 안위는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하고 부르십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된 죽음의 행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멈춥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걷는 걸음은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습니다(롬 5:17).

기도

영원하신 하나님, 죽음의 행렬 가운데 서 있는 저에게 동행의 길을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걸음을 주와 함께 걷게 하시고, 참된 안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수고를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6일 · 창세기 6장

은혜를 입은 한 사람

오늘의 본문

창세기 6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
>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
>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
>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
>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의 물길이 크게 꺾이는 자리입니다. 인류의 부패와 하나님의 탄식, 노아의 사적, 그리고 방주 건조 명령이 이어집니다. 이 장부터 네 장에 걸쳐 펼쳐질 홍수 이야기의 문이 여기서 열립니다.

보고, 좋아하고, 취합니다

2절의 움직임은 낯익습니다. 보고, 좋아하고, 취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탐스럽게 여겨 따먹던 그 순서와 같습니다.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앞설 때 죄가 됩니다. 이 순서는 큰 범죄에서만 뒤집히지 않아서, 오늘의 일정과 지출에서 무엇을 먼저 두는지가 곧 그 자리입니다.

5절은 사람의 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진단입니다. 여기 ’ 계획’ 으로 옮겨진 말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다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곧 마음의 틀 자체를 가리킵니다.

행동 몇 가지를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생각을 찍어 내는 틀이 어긋났다는 진단입니다. 여기에 ‘모든’ , ‘항상’ , ’ 뿐’ 이라는 말이 겹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전적 부패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을 다 저지른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의 어느 부분도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인격적 진실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죄는 규정을 어기는 문제이기 전에 사랑하시는 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엡 4:30)도 같은 결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8절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문은 "여호와의 눈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그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선언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9절에서 그가 의인이었다고 소개됩니다. 구원은 언제나 은혜가 먼저이고 의는 그 열매입니다.

9절의 '완전한'은 흠 없는 제물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입니다. 흠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라기보다 갈라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당대에"가 붙습니다. 노아의 의는 온 땅이 부패한 바로 그 시대 안에서의 의였습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동행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문이 하나인 배

하나님은 규격까지 상세히 일러 주십니다. 고페르 나무, 역청, 삼백 규빗, 삼 층, 그리고 문 하나. 방주를 뜻하는 단어는 훗날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에도 쓰입니다.

문은 하나였습니다. 방주가 심판의 물에서 건져 낸 이 일을 베드로는 세례에 잇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벧전 3:21).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물을 지났듯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지납니다.

18절에서는 성경 최초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판을 예고하시는 자리에서 언약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담담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아직 보이지 않는 때에 배를 지은 순종입니다.

오늘의 적용

오늘 나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침에 소리 내어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제 마음의 틀까지 아시는 주 앞에 엎드립니다. 제 죄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주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오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7일 ·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오늘의 본문

창세기 7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11절**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
> **13절**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
>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
>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예고가 현실이 되는 장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 들어감, 그리고 물이 불어나 온 땅을 덮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문장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물은 점점 높아집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개인의 구원이 가정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밝히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는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입니다. 노아의 의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확인된 의였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이 은밀한 순종을 지탱합니다.

2절에서는 성경 최초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 나옵니다. 정결한 짐승을 일곱씩 싣게 하신 것은 물이 물러간 뒤에 드릴 예배까지 내다보신 준비였을 것입니다.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하십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에도 칠 일의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은 그 마지막 날들의 풍경을 전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판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세상은 평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마지막까지 문을 열어 두지만, 그 참으심을 무관심으로 오해하는 것이 사람의 비극입니다.

노아가 배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그 배를 보며 살았습니다. 경고가 눈앞에 서 있었는데도 마지막 이레까지 아무도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16절에서 문을 닫은 이는 노아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닫으셨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두 진실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입니다. 안에서 잠근 문은 안에서 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잠그신 문은 어떤 파도도 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손에서도 아버지의 손에서도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요 10:28-29)이 여기서 이미 울립니다.

다른 하나는 확정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을 때 밖에 있던 자가 들어올 길도 함께 닫혔습니다. 은혜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떠오른 방주

물이 불어날수록 방주는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떠올랐습니다. 같은 물이 어떤 이에게는 멸망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떠받침이었습니다.

여덟 사람은 물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물을 지나서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세례에 이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벧전 3:20-21).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기보다 그 문제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물 아래로 내려가셨기에 우리는 그 물 위로 떠오릅니다.

오늘의 적용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일 하나를 오늘 끝까지 지켜 내십시오. 보고서의 마지막 검토든 약속 시간이든 좋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가까운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문이 열려 있는 오늘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

주 하나님,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의 얼굴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문을 닫아 지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살게 하시고, 아직 문이 열려 있는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물을 대신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8일 ·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오늘의 본문

창세기 8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
>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
>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
>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물이 물러가는 장이고, 홍수 이야기 전체의 무게 중심이 놓인 장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긴 서사가 8장 1절을 향해 올라갔다가 그 한 절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물길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순간에 꺾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기억하사’로 옮겨진 말은 잊었다가 다시 떠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언약에 근거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을 때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그 요청은 곧 구원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8장 1절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 움직임이 바람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바람’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물이 온 땅을 덮은 상태는 창조 이전의 혼돈으로 되돌아간 모습이었고, 이제 그 영이 다시 물 위에 임하십니다. 홍수 이후의 세계는 새 창조로 그려집니다.

기다림의 훈련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세 번 내보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돌아오고, 두 번째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고,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사이 칠 일을 더 기다렸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첫째 달 초하룻날,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물이 걷힌 것을 제 눈으로 봅니다(13절). 그러고도 나가지 않습니다. 둘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고"(16절) 하시는 말씀이 있은 뒤에야 나옵니다. 상황이 허락한다고 곧 하나님의 때인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제단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짓는 것도 밭을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제단'이 처음 등장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원문은 만족과 평안을 주는 향기입니다.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실제로 향기로울 리 없으니, 그것을 향기라 부르신 것은 그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다고 증언합니다. 노아의 제단은 그 제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하신 결심

21절에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유로 드신 것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을 심판하신 바로 그 이유가 이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로 뒤집힙니다. 사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인지는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혀집니다.

그리고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쉬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오늘 아침 해가 뜬 것 자체가 이 약속의 증거입니다.

오늘의 적용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자리를 하나 적고, 기억하신다는 말이 곧 움직이신다는 뜻임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저를 향해 움직이시는 주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물이 빠지는 것을 보는 눈보다 나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제 삶의 첫 자리에 제단을 쌓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의 예배가 받으실 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9일 · 창세기 9장

무지개 언약과 여전한 사람

오늘의 본문

창세기 9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
>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
>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
>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
>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
>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새 출발의 장이면서, 동시에 새 출발도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장입니다. 새 세계의 규례와 무지개 언약이 열일곱 절에 걸쳐 찬란하게 펼쳐지고, 그다음 열두 절이 아프게 이어집니다.

다시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홍수 이후의 세계는 창조의 재개입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육식이 허용됩니다. 창조의 질서에 금이 갔음을 인정하는 조정입니다. 거기에 조건이 붙는데,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사람이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한층 더 무겁게 다루십니다. 6절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유효합니다. 사람이 선하지 않아도 그 생명은 존귀합니다. 야고보서 3

장 9절이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면서 같은 근거를 댑니다. 오늘 내가 험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늘에 걸어 두신 활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십니다. 여기 ' 무지개' 로 옮겨진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대부분 전쟁 무기인 ' 활' 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심판의 활을 땅을 겨누지 않은 채 하늘에 걸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6절에서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무지개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하시기 위한 표지입니다. 언약의 무게 전체를 하나님이 지십니다. 이것이 은혜로 주신 언약의 성격이며,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는 장면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취하였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장막에 누웠습니다. 대심판도 언약의 무지개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의 경험도 성숙을 저절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은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노아보다 나은 이, 참된 구주가 필요합니다.

덮은 사람과 드러낸 사람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덮었습니다. 같은 사실을 보았지만 한 사람은 드러냈고 두 사람은 덮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벧전 4:8)이 여기서 이미 살아 있습니다.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예언은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합니다. 이 본문은 역사 속에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오용된 적이 있으나, 본문 자체는 결코 그런 근거를 주지 않습니다.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26절) 하며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노아도 되어 주지 못한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셈의 계보에서 나십니다.

오늘의 적용

누군가의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옮기지 않고 덮는 자리에 서기로 오늘 정하십시오.

은혜를 크게 경험한 뒤 오히려 느슨해진 영역이 있는지 살피고, 오늘 경계선 하나를 다시 세우십시오.

기도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활을 내려놓으시고 무지개로 약속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의 연약함이 여전함을 알기에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는 사랑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주의 형상으로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도 되어 주지 못한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0일 · 창세기 10장

흩어진 민족들, 모으시는 하나님

오늘의 본문

창세기 10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
>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
>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
>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
>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나온 민족들의 명단입니다. 세어 보면 일흔 안팎입니다. 건너뛰기 쉬운 장이지만, 이 명단은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넓게 퍼져 가는 이름들 사이에 한 줄기가 눈에 띄게 남습니다.

한 뿌리에서 갈라진 민족들

세 계보 끝마다 비슷한 후렴이 붙습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마지막 절은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고 맺습니다. 민족이 여럿이라는 사실 자체는 저주가 아니고 창조의 확장입니다. 문제는 교만과 분열에서 생깁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이 이 장을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이름을 쌓는 나라

계보 가운데 유독 자세히 소개되는 인물이 니므롯입니다. 세상에 첫 용사라 하고, 그의 나라는 바벨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거기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훗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두 제국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힘으로 이름을 쌓는 나라의 계보이고, 그 마음은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좁아지는 물줄기

세 계보 중 셈의 계보가 마지막에 놓입니다. 중요한 줄기를 끝에 두고 다음 장에서 이어 가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셈의 후손 중 에벨의 아들 벨렉이 언급되는데,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합니다.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열국은 넓게 퍼지는데 구원의 줄기는 셈에서 에벨로, 에벨에서 벨렉으로 좁아집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한 줄기를 택하십니다. 이 줄기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며 이 줄기의 이름들을 지나 셈과 노아에 닿습니다(눅 3:35-36).

흩어짐에서 모임으로

10장의 마지막 단어는 '나뉘었더라'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그림은 정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 줍니다. 창세기 10장의 명단이 요한계시록 7장의 찬양대가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자기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계 5:9).

이 장의 이름 중 상당수는 뜻조차 확인되지 않고 역사에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창세기는 그 이름들을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잊힌 민족이 없고 잊힌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부릅니다(계 21:27).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기도

만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시고 그 이름들을 잊지 않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흩어진 열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제가 선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1일 · 창세기 11장

흩어짐 속에 예비된 언약의 길

오늘의 본문

창세기 11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26절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 10장이 민족들의 명단이었다면 11장은 그들이 왜 흩어졌는지를 들려줍니다. 앞의 아홉 절은 시날 평지에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던 이야기이고, 나머지는 셈에서 아브람에 이르는 족보입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려던 시도가 무너진 바로 뒤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로 이어 오신 길이 놓여 있습니다.

벽돌로 쌓은 하나됨

바벨 사람들은 흩어짐을 두려워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세워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4절의 말은, “땅에 충만하라” 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말이 통했고 목적도 하나였습니다. 다만 그 결속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3절은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습니다. 돌은 주어진 것이고 벽돌은 사람이 구워 낸 것입니다. 만들어 낸 재료가 손에 쌓이자 하늘까지 닿겠다는 자신감도 함께 자랐습니다. 손에 쥔 기술과 성과가 늘어날수록 우리도 같은 유혹 앞에 섭니다.

내려오셔서 흩으시고, 다시 모으십니다

하늘에 닿게 하겠다던 탑을 두고 5절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고 적습니다. 사람이 힘껏 쌓아 올린 높이가 하나님께는 내려와 보셔야 할 만큼 낮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흩으십니다. 심판이었고, 그러면서 보호이기도 했습니다. 탑이 완성되었다면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걸리고 그곳은 그 이름을 섬기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진 언어는 오순절에 다시 모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난 곳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행 2:8-11). 성령은 언어를 하나로 되돌리지 않으시고, 갈라진 말 그대로 복음을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낸 자와 이름을 받은 자

바벨 이야기 바로 뒤에 셈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는 문장이 대를 이어 되풀이되다가 그 끝에 데라와 아브람이 놓입니다. 사람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지던 세월에도 하나님은 한 계보를 조용히 이어 오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던 아홉 절에는 정작 사람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남은 것은 족보 끝에 적힌 아브람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스스로 내기보다 하나님께 받는 것임을 이 족보가 일러 줍니다.

이 계보는 아브람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눅 3:34-36). 예수님은 스스로 이름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빌 2:8-9). 바벨에서 흩어진 모든 혀가 그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빌 2:11).

오늘의 적용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며 애쓰던 일 하나를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름 없이도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제 이름을 내려고 벽돌을 굽던 마음을 오늘 아침 정직하게 봅니다. 쌓아 올린 것이 멈추고 무너질 때 그것이 저를 지키시는 손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 아브라함

제12일 · 창세기 12장

부르심과 언약

오늘의 본문

창세기 12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
> **4절**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
>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
>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
>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 11장에서 사람의 이름을 내려던 시도가 흩어짐으로 끝난 직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구속사가 여기서 크게 방향을 틉니다. 부르심에는 아무 조건이 붙지 않고 아브람의 자격이나 공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장 후반부에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곧바로 무너지는 장면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보여 주겠다

1절은 떠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이라고만 하십니다. 목적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떠나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뒤로 갈수록 더 가까운 쪽으로 좁혀집니다. 지도 위의 거리를 말씀하신 것이기보다, 나를 나답게 만들던 뿌리를 하나씩 내려놓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히 11:8).

복을 받는 자에서 복이 되는 자로

2절은 “너는 복이 될지라”로 끝납니다. 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복이 되라는 말씀이고, 3절에서 그 범위가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넓어집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진 민족들이 여기서 다시 시야에 들어옵니다. 온 인류를 향한 뜻을 품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벨 사람들이 스스로 내려던 이름도 2절에 다시 나옵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내자던 사람들은 흩어졌고, 부름받은 사람은 이름을 받습니다.

칠십오 세에 떠난 사람

4절은 나이를 적어 둡니다. 칠십오 세.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인데 본문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그에게는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자리가 잡힌 사람에게 떠나라는 말은 빈손인 사람에게 하는 말보다 무겁습니다. 아브람은 그 무게를 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남의 땅에 쌓은 제단

가나안에 들어선 아브람이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릅니다. 6절은 거기에 한마디를 붙여 둡니다.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보여 주겠다 하신 땅에 와 보니 이미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아들도 없고 땅 한 뼘도 없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람은 거기 제단을 쌓습니다.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뒤에도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8절). 남의 땅을 지나는 동안 그가 세운 것은 장막과 제단뿐입니다.

부르심을 받고도 내려갔습니다

같은 장 후반부는 읽기가 아픕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이 가까워지자 아내에게 누이라 하라고 시킵니다. 자기 목숨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약속의 길을 함께 떠나온 사래가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 들어가고, 아브람은 그 일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습니다(16절).

본문은 변명 한 줄 없이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습니다. 제단을 쌓던 사람이 기근과 두려움 앞에서는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복이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의 출발점이 이러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언약을 세우신 분이 지키십니다

무너진 자리를 수습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17절에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래를 건져 내십니다. 아브람이 한 일이라고는 이방 왕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는 책망을 들은 것뿐입니다(18절). 그는 아내와 모든 소유와 함께 애굽에서 보내어집니다.

언약의 성취가 사람의 완전함에 달려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12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신 분이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바울은 3절의 약속을 복음의 예고로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갈 3:8). 그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지는 7절의 낱말 하나가 알려 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람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고, 바울은 그 자손이 한 사람, 곧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갈 3:16).

땅의 모든 족속이 얻을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아브람이 무너져도 끊어지지 않은 약속이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적용

내가 복을 받는 데서 멈추지 않도록, 오늘 나를 통해 한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 하나를 정해 건네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상황을 미리 손보려는 자리가 있다면, 오늘은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기도

부르시는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익숙한 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손을 펴 주시고, 복을 받는 자리에서 복이 되는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제 모습을 알기에 더욱 주를 의지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언약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3일 · 창세기 13장

헤어짐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

오늘의 본문

창세기 13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7절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8절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애굽에서 나온 아브람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조카와 헤어져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13장은 다툼과 헤어짐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자리에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 줍니다.

처음 제단으로 돌아왔습니다

2절은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적습니다. 애굽에서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이른 곳은 벧엘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애굽에서 늘어난 재산은 넘어진 그를 세워 주지 못했습니다. 회복은 처음 자리로 돌아가 다시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아져서 다투었습니다

6절이 밝히는 다툼의 이유가 뜻밖입니다. 소유가 많아서 그 땅이 두 집을 함께 품을 수 없었습니다. 부족할 때 다툴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많은 다툼은 넉넉해진 다음에 일어납니다.

7절은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고. 믿는 이들의 다툼을 지켜보는 눈이 밖에 있었습니다.

먼저 고르라고 한 사람

아브람은 나이로도 부르심으로도 먼저 고를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조카에게 먼저 고르라고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성품이 너그러워서 나온 말로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는 손을 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고르지 않아도 내 몫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믿음은 이런 자리에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눈을 든 두 사람

롯이 눈을 들었습니다.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였고, 그는 그 온 지역을 택해 동쪽으로 옮겨 갑니다. 본문은 곧바로 13절을 붙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창세기 3장의 하와도,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렇게 보고 취했습니다.

아브람도 눈을 듭니다. 다만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실 때였습니다. 같은 동작인데 롯은 스스로 골랐고 아브람은 보여 주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보여 주신 땅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눈에 보이는 전부였습니다. 롯이 고른 요단 지역까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고도 하십니다(17절). 그렇다고 양보가 더 큰 것을 얻는 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얻으려고 하는 양보는 곧 거래가 됩니다. 주시는 분이 따로 계셨기에 그는 손을 펼 수 있었고,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긴 뒤에 한 일도 다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18절).

이 약속은 아브람 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유업의 크기를 이렇게 적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롬 4:13). 참된 상속자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약속대로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갈 3:29).

오늘의 적용

최근 관계가 어려워진 자리를 떠올리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넉넉해져서 생긴 문제는 아닌지 살피십시오.

이번 주 나에게 먼저 고를 권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 번만 뒤로 물러서 보십시오. 순서든 자리든 몫이든 좋습니다.

오늘의 선택 하나를 눈에 좋아 보이는 쪽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남는 쪽으로 정하십시오.

기도

주시는 하나님, 제 손으로 먼저 고르지 않으면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손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보여 주시는 것을 받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 상속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4일 · 창세기 14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오늘의 본문

창세기 14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
> **14절**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
>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
> **19절**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
>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
> **21절**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
>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낯선 왕들의 이름이 길게 이어지는 전쟁 기록입니다. 이 장의 무게는 전쟁보다 전쟁이 끝난 뒤의 골짜기에 실려 있습니다. 돌아오는 아브람을 두 왕이 맞습니다. 사람을 돌려 달라 한 소돔 왕과,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 먼저 축복한 살렘 왕입니다.

갈라선 조카를 구하러 갔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좋은 땅을 골라 떠난 조카가 사로잡혔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알리자 아브람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밤에 나뉘어 그들을 쳐부수고 롯과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그때 잘못 골랐으니 겪을 만하다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떠난 사람의 나쁜 소식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대개 그쪽으로 기웁니다. 아브람에게 롯은 갈라선 뒤에도 친족이었습니다.

골짜기에서 만난 두 왕

돌아오는 길, 사웨 골짜기로 두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고 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먼저 축복합니다. 18절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부르는데, 성경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자리입니다. 아론의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수백 년 전이고, 그 첫 제사장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브람의 집 밖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그에게 줍니다. 율법이 없던 때이니 규정을 따른 것일 수 없습니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축복의 말에 드림으로 답한 것입니다. 승리가 삼백십팔 명의 훈련에서 오지 않았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소돔 왕의 제안은 거절합니다. 멜기세덱에게서 들은 그 이름,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입니다(22절). 정당한 몫이었는데도 실 한 오라기, 들메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을 치부하게 하였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싸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그대로 챙겨 줍니다(24절). 받고 나면 누구에게 고맙다고 하게 될지를 그는 헤아렸습니다.

끝나지 않는 제사장

멜기세덱은 이 장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선언합니다. 레위 계열 제사장은 죽으면 직분이 끝나지만, 시작과 끝이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은 끝나지 않는 제사장직을 가리킵니다. 그가 들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 주신 떡과 잔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도 요구하러 오지 않으시고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다른 제물을 들고 오지 않으시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히 7:27).

오늘의 적용

멀어진 사람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면, 그때 그 사람이 잘못 골랐다는 생각을 접고 오늘 연락 한 번을 하십시오.

기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얻은 것이 제 힘에서 온 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자리마다 주님께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구하러 오는 소리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복하러 오시는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5일 · 창세기 15장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오늘의 본문

창세기 15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1절**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
> **2절**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
>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
>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
> **12절**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
>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람은 전쟁에서 이기고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승리 다음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15장은 그 두려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 주고, 그 밤의 대화 속에서 성경 전체의 기둥이 되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오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브람의 어떤 말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가 부르짖었다는 기록은 본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방패는 지키시겠다는 말이고, 상급은 내가 곧 네 몫이라는 말입니다. 소돔 왕의 물품을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몫이 되어 주십니다.

따져 물은 기도, 밖에서 본 별

아브람의 대답은 감사보다 항변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주시려 하느냐고, 나는 자식이 없다고, 주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거듭 말합니다(2-3절). 오래 눌러 둔 말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십니다. 아들 하나 없는 사람이 셀 수 없는 별 아래 서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은 없고 눈앞에 있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의문이 없어야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아브람은 의문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의로 여기셨습니다

6절은 성경 전체의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이 그의 도덕적 완성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바울은 이 한 절 위에 이신칭의를 세웁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롬 4:5). 내가 의로워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의롭다 하시기에 받아들여집니다. 믿음은 그 의를 받는 빈손입니다.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바로 뒤에서 또 묻습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8절).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짐승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삼 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입니다. 아브람은 짐승의 중간을 쪼개어 마주 대하여 놓고, 사체 위에 내리는 솔개를 쫓으며 기다립니다.

해 질 때에 깊은 잠이 그에게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덮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듣기 좋은 말만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사백 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겠고, 그 뒤에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미리 알려 주십니다(13-14절). 약속은 확실하되 거기까지 가는 길은 길고 어두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는 두 사람이 쪼갠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갔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밤에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람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 홀로 지신 것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거기 사는 열 족속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 가며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라 하십니다(18-21절). 그 밤에 아브람이 한 일이라고는 짐승을 벌여 놓고 솔개를 쫓다가 잠든 것뿐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진 자리에 서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도 내 성과가 아니라 이미 값을 치르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기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제가 부르짖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제 의문을 숨기지 않고 아뢸 수 있는 관계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없는 자리에서도 약속하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언약의 책임을 홀로 지시고 쪼개진 자리에 서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6일 · 창세기 16장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의 본문

창세기 16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2절**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
> **6절**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
> **8절**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
>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
>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 15장에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받은 사람이 16장에서는 사람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앞질러 갑니다. 그 일로 밀려난 한 여인이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 장은 아무도 찾지 않던 그 여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앞질러 간 사람들

3절은 이 일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다고 적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가장 그럴듯한 지름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2절 사래의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다른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앞질러 갑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관습이 허락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브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가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라고만 적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일이 벌어지자 집 안이 무너집니다. 임신한 하갈은 여주인을 멸시하고, 사래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며 아브람을 원망하고, 아브람은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며 손을 뗍니다. 본문은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세 사람이 저마다 어긋난 것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도망합니다.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납니다. 첫마디가 그의 이름입니다. "사래의 여종 하갈아." 이 장에서 아브람과 사래는 그를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내 여종, 당신의 여종이라고만 합니다. 그 집에서 그는 문제였고 걸림돌이었는데, 하나님께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분까지 함께 부르신 것은 그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물으신 것일 리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그 물음이고, 도망하는 사람을 멈춰 세워 말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갈은 어디서 왔는지는 대답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네 고통을 들으셨다

태어날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11절이 그 까닭을 붙여 둡니다.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갈이 부르짖었다는 기록은 본문에 없습니다. 소리 내지 못한 고통까지 들으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는 이미 들린 소리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13절에서 하갈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인 첫 자리인데, 그 사람이 여종이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살피신다'는 말은 감시한다는 뜻보다 눈여겨보고 돌본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아 주지 않는 광야에서 하갈은 자기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샘은 브엘라해로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14절).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은 끝내 아들을 보내어 몸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남편 다섯을 지나온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광야 샘 곁에서 하갈을 찾아내신 그 눈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눅 19:10).

오늘의 적용

기다림이 길어져 찾아 둔 지름길이 있다면, 오늘 그 계획을 하루만 멈추고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내 주변에서 아무도 이름을 불러 주지 않는 한 사람을 떠올리고,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기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저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제 손으로 지름길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소리 내지 못한 신음까지 들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7일 · 창세기 17장

이름을 바꾸시는 언약의 하나님

오늘의 본문

창세기 17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1절**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
> **5절**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
>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
>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
>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
>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
>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뒤 십삼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의 일은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앞질러 간 다음에 온 것은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책망보다 먼저 자기 이름을 알려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십삼 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왜 그랬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엘 샤다이, 넉넉히 채우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아브람의 실패는 그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짚으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들려주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말도 이것입니다.

3절에서 아브람이 엎드립니다. 조건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대등한 상대뿐인데, 여기서 조건을 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더 충성하겠다는 식의 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여시고, 사람은 엎드려 받습니다.

이름과 표징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으로 불리면서 그는 여든여섯 해를 자식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현실에 맞춰 줄여 주지 않으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더 큰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맞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름에 맞게 현실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사래도 사라라는 새 이름을 받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16절).

이름과 함께 표징이 주어집니다. 할례는 감추어진 자리에,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새깁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표일 수 없습니다. 난 지 팔 일 만에 받게 하신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공로도 없는 때입니다. 언약이 사람의 응답보다 먼저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셈입니다. 바울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할례는 그 의를 확인하는 표였다고 말합니다(롬 4:10-11).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은 바로 그날 온 집의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23절).

웃은 사람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백 세와 구십 세라는 숫자를 마음속으로 셈해 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도 이렇게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웃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삼으십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아룁니다. 이미 손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도 들었다 하시며 이스마엘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다만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아들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21절).

7절은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 부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들에게서 이어진 약속의 줄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고후 1:20). 우리 셈으로는 웃음이 나오는 약속도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확정된 약속입니다.

오늘의 적용

무너진 뒤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색해진 자리가 있다면, 오늘은 변명하지 말고 그저 엎드리는 시간부터 가지십시오.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오래 침묵하신 시간 뒤에도 저를 다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제 손으로 앞질러 갔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제 셈으로는 웃음이 나오는 약속 앞에서도 이름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8일 · 창세기 18장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의 본문

창세기 18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
>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
>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
>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 17장에서 새 이름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천둥도 번개도 없는 뜨거운 한낮의 장막 문 앞입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대화가 오가고, 그 자리에서 아들에 대한 약속이 기한까지 붙어 나옵니다.

뜨거운 한낮의 장막 문

1절은 배경을 자세히 적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였고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워서 다들 쉬는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곤 하는데 이 장은 가장 평범한 시간의 문 앞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오늘의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사람 셋을 본 아브라함은 곧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힙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에 대접의 수준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물을 조금,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말해 놓고는 급히 장막으로 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게 하고,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엉긴 젖과 우유까지 차려 놓은 뒤 그는 나무 아래에 모셔 섭니다. 백 세를 앞둔 사람이 한낮에 달리고 또 달립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재고 나서 태도를 정하는 우리의 습관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장막 뒤에서 웃은 사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조롱이라기보다 오래 실망해 온 사람의 웃음입니다. 접어 둔 소망을 다시 꺼내는 일이 그에게는 더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웃은 그 웃음을 아셨습니다. 길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한 문장으로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기한을 다시 붙이십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날짜가 있는 약속입니다. 두려워진 사라가 웃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십니다(15절). 웃음을 못 본 척 덮어 주지도 않으시고, 그 웃음 때문에 약속을 거두지도 않으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고 이 장에서는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들의 이름이 됩니다.

물러서지 않은 기도

손님들이 일어나 소돔으로 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며 소돔의 일을 알려 주십니다(17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오십에서 열까지 여섯 번을 내려가며 간구합니다. 조카가 그 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카를 봐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주께 합당하지 않다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냐고 아룁니다(25절).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하면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여섯 번을 다 들으셨습니다.

나그네로 오신 분

33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십니다.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방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보다 훨씬 깊이 들어오신 방문을 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상수리나무 아래의 손님은 식사를 마치고 떠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머무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오늘 가장 평범한 시간 한 대목을 정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나가실 수 있다고 여기며 지내 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 한 명에게 그가 누구인지 계산하기 전에 먼저 친절을 베푸십시오.

불가능하다며 속으로 웃고 접어 둔 기도 하나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다시 아뢰십시오.

기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뜨거운 한낮의 문 앞에도 오시는 주님을 오늘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재고 나서 대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확인하기 전에 먼저 내어 주는 손을 주시옵소서. 이미 접어 둔 소망 앞에서 웃는 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심을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9일 · 창세기 19장

성문 앞에서, 나를 끌어들이신 손

오늘의 본문

창세기 19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
> **6절**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
>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
>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
>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
>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이 장에는 문이 거듭 나옵니다. 롯이 앉아 있던 성문, 그가 등 뒤로 닫은 문, 무리가 부수려던 문, 그리고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고 닫은 문입니다. 문을 따라 읽으면 이 어두운 장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보입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은 그 시대에 재판이 열리고 거래가 오가던 곳입니다. 롯이 거기 앉아 있었다는 것은 소돔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그는 장막을 소돔까지 옮겼고, 14장에서는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불렸고, 이제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배부름에서 시작된 죄

그날 밤 소돔 백성은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소돔의 죄를 우리는 이 밤의 폭력으로 기억합니다. 에스겔은 그 뿌리를 더 깊은 데서 짚습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주지 아니하며”(겔 16:49).

배부름이 교만으로, 교만이 가난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자랐고 그 끝에 이 밤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큰 죄보다 넉넉함 속에서 조용히 굳어 가는 무감각이 더 두렵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문

롯은 문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닫고 몸으로 막아섭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베드로는 그를 의로운 롯이라 부릅니다(벧후 2:7).

그 문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리를 형제라 부르며 달래려 했고 끝내는 딸을 내어 주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돌아온 것은 너는 물러나라는 말이었습니다. 들어와 거류하는 자가 법관이 되려 한다는 비웃음을 듣고 그는 밀쳐집니다. 성문에 앉기까지 쌓은 자리가 이 밤에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의롭다 불린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그 문은 그의 힘으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가정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믿어 온 우리에게 이 장면은 아픈 진단입니다.

붙잡혀 들어간 사람

10절에서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롯은 제 발로 들어가지 못하고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같은 일이 새벽에 또 일어납니다. 사위들은 떠나라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동틀 때에 천사가 재촉하는데도 롯은 지체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에 둡니다. 16절은 그 까닭을 한마디로 적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밖에 나와서도 롯은 산까지는 갈 수 없다며 가까운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게 해 달라고 청하고, 그 소원까지 받아들여집니다(21절).

창세기 7장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여호와셨습니다. 구원은 붙드시는 손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29절이 이 장의 결론을 조용히 알려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합니다. 롯이 의로워서 건짐받았다고는 적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의롭다 부른 것도(벧후 2:7) 그가 건짐받을 값을 치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으로 가서,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27-28절).

창세기 18장에서 그가 물러서지 않고 드린 간구가 이렇게 응답됩니다. 성은 남지 않았고 사람이 건져졌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것도 누군가의 기도 덕분일 수 있습니다.

롯은 문 밖으로 나섰다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끌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히 13:12). 우리가 문 안에서 안전한 것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기도

붙드시는 하나님, 제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문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합니다. 조금씩 옮겨 앉은 자리를 보게 하시고, 넉넉함 속에서 무뎌진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지체하는 저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내시는 자비를 오늘도 의지합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0일 · 창세기 20장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는 손

오늘의 본문

창세기 20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
>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
>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
>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
>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
>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 18장에서 기한까지 붙여 약속하신 아들의 출생이 코앞에 다가온 때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이십여 년 전 애굽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약속의 아들을 낳을 사라가 다시 이방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은 사람의 실패보다 그 실패 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크게 그립니다.

오래 준비해 둔 각본

이때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을 받았고,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했고, 소돔을 위해 거듭 간구한 사람입니다. 오래 믿었다는 사실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증은 되지 못했습니다.

13절이 이 장에서 가장 아픈 대목입니다. 아주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정말로 그의 이복 누이였습니다(12절). 참말의 한쪽만 골라 쓴, 더 정교한 속임이었습니다. 그날 급히 지어낸 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되었을 때부터,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말하기로 정해 둔 각본이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에 이름까지 붙여 두었습니다.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 ' 은혜' 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는 죄라고 불릴 때보다 경건한 이름을 얻었을 때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막으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방 왕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수습에 나서기 전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고.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짓지 않은 죄 가운데도 막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7절에서 성경에 ' 선지자' 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렇게 불린 사람이 방금 아내를 누이라 속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선포하는 자라고 풀지 않으시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아비멜렉을 직접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굳이 실패한 사람의 기도를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쓰지 않으시고 은혜로 쓰십니다.

17절이 이 장의 결말입니다. 약속을 받고도 이십오 년 가까이 자기 아내의 태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 남의 닫힌 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 기도가 아브라함 자신의 문제를 여는 열쇠였던 것은 아닙니다. 사라의 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열릴 것입니다(창 18:14). 하나님은 그 기다림 가운데서 그에게 남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내 문제가 다 풀린 사람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진 아브라함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넘어지지 않는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히 7:25).

오늘의 적용

경건한 말로 포장해 두었던 습관 하나를 그 본래 이름으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내 닫힌 문보다 다른 사람의 닫힌 문을 먼저 아뢰십시오.

기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죄에 경건한 이름을 붙여 감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저를 여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의 닫힌 문을 먼저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1일 · 창세기 21장

에셀나무의 믿음

오늘의 본문

창세기 21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2절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아들이 태어난 기쁨 옆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픔이 함께 놓이고, 장의 끝에서는 백 살이 넘은 노인이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웃음으로

1절이 같은 말을 두 번 되풀이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고 합니다. 2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낳았다고 적습니다. 이십오 년이 걸렸어도 성경의 눈에 그날은 늦은 날이 아니라 말씀하신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여기는 날도 하나님의 시기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웃었고 18장에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마음 놓고 웃은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6절에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고 말합니다. 혼자 속으로 삼키던 웃음이 함께 웃는 웃음이 되었고, 아들의 이름 이삭이 그 웃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들으신 소리

이 기쁜 장 안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나가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어머니는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며 화살 한 바탕 거리쯤 떨어져 앉아 소리 내어 웁니다(16절).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소리 내어 운 사람은 어머니였는데 17절은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두 번 적습니다. 이어서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샘은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하갈이, 쫓겨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앉지 못할 그늘을 심었습니다

22절에서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아브라함은 자기 입으로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창세기 20장에서 그에게 속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우물을 두고 맹세한 그 자리가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33절). 소금기 많은 메마른 땅에서도 잎을 떨구지 않고 오래 사는 나무인데, 자라서 그늘을 드리우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이때 그는 백 살이 넘었습니다. 그 그늘에 앉을 사람은 그가 아니고 후손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적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히 11:13).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그늘도 누군가 앉지 못할 줄 알면서 심은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고 환영한 것은 나무 그늘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에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12절). 웃음이라는 이름의 아들은 그 약속의 첫 열매였고, 약속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8:56). 오늘 우리는 그가 멀리서 바라본 예수님의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없는 것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주셨는데 보지 못한 것이 있는지 오늘 눈을 들어 살피십시오.

내 대에 결과를 보지 못할 일 하나를 오늘 시작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든 후배를 가르치는 일이든 좋습니다.

기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늦었다고 여기는 날에도 주의 시기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우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제가 앉지 못할 그늘을 오늘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2일 ·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 산에 오르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

오늘의 본문

창세기 22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막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신다는 뜻으로 자주 씁니다. 본문을 끝까지 읽고 나면 물음 하나가 남습니다. 수풀에 뿔이 걸린 그 숫양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망갈 구멍을 두지 않으신 명령

하나님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씩 짚어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바꿔 볼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이삭은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르리라는 말씀이 걸려 있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아들과 함께 약속까지 내놓으라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본문은 첫 절에서 이것이 시험이었다고 미리 알려 줍니다.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아닙니다. 신명기는 광야의 시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신 8:16). 하나님은 모르셔서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지나며 알게 되는 쪽은 우리입니다.

아침 일찍, 그리고 사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두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 뒤에 사흘 길이 있었습니다. 제삼일에야 그곳이 멀리 보였습니다(4절). 아침의 결단 한 번으로 끝나는 순종이 아니었고, 사흘을 걸으며 견뎌야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사흘의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을 히브리서가 전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히 11:19).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드리러 가면서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실 리 없다는 데까지 그는 사흘 동안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종들을 뒤에 두고부터는 아버지와 아들 둘뿐입니다. 나무는 이삭이 지고 불과 칼은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이 장에서 이삭이 입을 여는 것은 이때 한 번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7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합니다. 양이 어디서 날지는 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것, 그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성경은 이 문답의 앞과 뒤에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는 말을 한 번씩 놓았습니다(6, 8절). 답을 다 듣지 못한 채로도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묶인 아들

산 위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아들을 결박합니다. 이삭은 번제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를 만큼 자라 있었으니(6절) 늙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묶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드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잡은 손을 하늘에서 부르는 소리가 멈춰 세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12절).

바울은 이 말을 가져다 하나님께 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롬 8:32). 모리아에서는 칼이 멈추었지만 십자가에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아들 예수님도 그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숫양 한 마리가 뒤에 있었습니다. 뿔이 수풀에 걸린 채였습니다. 그가 칼을 든 다음에 생겨난 양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도착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가 계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고, 성경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말한다고 덧붙입니다. 지나간 일 하나를 기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그를 부르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다고 전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맹세입니다(18절).

이 산이 어디인지는 성경이 나중에 알려 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대하 3:1). 그 자리에서 수백 년 동안 제사가 드려졌고, 마침내 그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밖에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숫양이 이삭을 대신했듯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적용

지금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 하나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두십시오.

기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제가 산에 오르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놓지 못하는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저를 아시니, 오늘 그 손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답을 다 듣지 못한 사흘 길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께, 거부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3일 · 창세기 23장

나그네가 산 무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3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가장 슬픈 날에 한 일은 땅 한 뙈기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육십 년이 넘도록 그에게는 제 땅이 한 평도 없었고, 아내를 묻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울고,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죽은 곳은 마므레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들을 약속받고 장막 뒤에서 웃던 바로 그곳입니다. 웃음이 있던 자리에 이제 곡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적습니다. 믿음이 슬픔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요 11:35). 그다음 절은 그가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울고 나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는 것과 주저앉는 것은 다릅니다.

나그네가 값을 치렀습니다

일어난 아브라함이 헷 족속 앞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백서른일곱 살에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인사치레로 낮춘 말로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헷 족속의 대답은 정중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라고 합니다. 당신들 중에 있는 나그네라고 한 사람을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좋은 평판처럼 들리지만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자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것도 묘실을 빌려 쓰라는 호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구한 것은 소유지였습니다.

그는 값을 깎지 않습니다. 은 사백 세겔을 상인이 통용하는 무게로, 헷 족속이 다 듣는 데서 달아 줍니다. 뒷날 누구도 이 땅을 두고 시비를 걸 수 없게 한 것입니다. 20절은 그 밭과 굴이 그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고 적습니다. 주리라 하신 땅에서 그가 평생 값을 주고 가진 것이 이 무덤 하나였습니다. 빌린 자리에 묻어도 되었을 텐데 굳이 사서 묻었으니,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표시를 땅에 박아 둔 셈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적습니다(히 11:16). 나그네라는 말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사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무덤에 누우셨다가 그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덤을 사서 심어 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서 이루어졌고, 나그네가 돌아갈 본향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의 적용

억눌러 온 슬픔이 있다면 오늘은 충분히 우십시오. 그리고 울고 난 다음에 일어나십시오.

기도

영원한 본향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슬픔을 감추지 않고 주 앞에 울게 하시고 울고 난 다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의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을 비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4일 · 창세기 24장

보이지 않게 앞서 가시는 하나님

오늘의 본문

창세기 24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
>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
>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
>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
>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
>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
>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인데, 이 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이 열리지도 않고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나오는 것은 늙은 종과 낙타 열 마리, 우물, 물 길으러 나온 처녀입니다. 이 조용한 이야기를 성경은 예순일곱 절에 걸쳐 적었습니다.

약속 위에 선 확신

사라는 죽었고 이삭에게는 아내가 없습니다. 언약이 한 세대에서 끊길 수도 있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거는 7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하셨고, 내게 말씀하셨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기분이 좋아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도 같은 자리에 섭니다. 내 마음 상태는 아침마다 달라져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는 약속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연을 일으켜 주소서

우물가에 도착한 종에게는 아는 사람도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달라고. 여기 쓰인 말은 우연히 마주치게 해 달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연이라 부르는 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구한 표징은 물 한 모금에서 끝나지 않고 낙타에게까지 마시게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낙타 열 마리가 마실 물을 긷자면 우물을 수십 번 오르내려야 합니다. 상냥한 사람보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구한 셈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15절).

지켜보고, 경배했습니다

처녀가 물을 길어 낙타에게까지 주는 동안 종은 묵묵히 주목합니다. 기도한 그대로 되어 가는데도 곧바로 단정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알고자 지켜봅니다(21절).

누구의 딸인지 듣고 나서야 그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인도하다'는 시편 23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쓰인 말과 같습니다. 도착한 지점만이 아니라 걸어온 길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일을 겪고 운이 좋았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종은 주께서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하시지만 앞서 가십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를 그대로 비춥니다. 구속사의 중요한 한 걸음이 저녁 우물가의 물 한 모금으로 이루어졌고, 약속의 계보는 이 결혼을 지나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은(7절) 그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도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며 자신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5:17).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오늘도 앞서 가십니다.

오늘의 적용

오늘 잡혀 있는 약속이나 만남 하나를 두고, 하나님께 그 자리의 우연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번 주에 잘 풀린 일 하나를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 말고, 인도하신 분의 이름을 불러 감사하십시오.

기도

앞서 가시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날에도 이미 걸어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확신을 그날의 기분 위에 세우지 않고 약속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만남과 걸음에 주의 손이 있게 하시고, 잘된 일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부 · 이삭과 야곱

제25일 · 창세기 25장

팥죽 한 그릇에 판 장자의 명분

오늘의 본문

창세기 25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아브라함이 죽고 이야기의 무게가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한 끼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 두 형제의 평생을 갈라놓는데, 성경이 그 일에 붙인 논평은 한 줄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태중에서 이미 정해진 것

이야기의 순서부터 봅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습니다(23절). 야곱의 수완은 그다음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기로 하신 것을 자기 손으로 챙기려 했고, 기다렸어도 받았을 것을 형의 허기를 틈타 앞당기려 했습니다. 약속은 처음부터 그의 수완에 기대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붉은 것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했다고 합니다. 여기 쓰인 말은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을 가리킬 때 쓰던 말입니다. 배가 조금 고픈 정도를 넘어 속이 타들어 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죽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그 붉은 것, 그 붉은 것이라고 색깔만 되풀이합니다. 바로 그 말이 그의 별명이 됩니다. 에돔은 붉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자 에서는 흥정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32절). 값을 매길 필요조차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뜻하는 말과 축복을 뜻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글자 순서만 뒤바뀐 두 낱말입니다. 두 낱말이 그만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34절이 서늘합니다.

동사가 잇달아 붙습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는 문장의 속도가 그가 이 일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를 보여 줍니다. 큰 것을 잃은 사람이 그 순간에는 잃은 줄을 모릅니다. 성경은 그가 자리를 뜬 다음에야 논평을 답니다. 이것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그의 피곤을 탓하지 않고 가볍게 여긴 마음을 짚었습니다.

히브리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 부르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고 당부합니다(히 12:16).

장자의 자리에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우리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라 부릅니다(히 12:23). 우리도 여러 번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지친 날 한 끼의 위로에 신앙과 양심을 넘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롬 8:29)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형제로 삼아 그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그릇에 넘긴 것을 예수님은 자기 피로 값을 치러 되찾아 주셨습니다. 야곱이 손으로 빼앗으려 한 것을 예수님은 손을 펴서 내어주셨습니다.

기도

값을 치르신 하나님, 지친 날 눈앞의 한 그릇에 귀한 것을 넘기는 저를 아십니다. 메마른 시간일수록 제가 무엇을 귀히 여기는지 주 앞에서 먼저 묻게 하시고, 이미 주기로 하신 것을 제 손으로 빼앗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낮추시고 저를 장자의 자리에 앉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6일 · 창세기 26장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더라

오늘의 본문

창세기 26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
>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
>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
>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
>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
>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
> **25절**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에서 이삭이 홀로 주인공이 되는 장은 여기 하나입니다. 흉년이 들자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하십니다. 이삭은 머물렀고,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머물라

기근 앞에서 애굽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 하시면서 이유 대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알려 주지 않으시고 누가 함께 계실지를 알려 주십니다.

머문 자리에서 이삭은 곧 넘어집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아버지가 두 번 했던 그 일을 아들이 그대로 되풀이한 것입니다. 순종해서 머문 자리라고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그 땅에서 농사하여 백 배를 거둡니다. 성경이 붙인 이유는 하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12절). 바로 앞에 그의 거짓말이 적혀 있으니,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갚으셔야 한다는 계산은 이 장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 우물을 흙으로 메웁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메우는 것은 생존을 끊는 일입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옮겨 가며 다시 팝니다. 그가 판 우물마다 이름이 붙습니다. 다툼이라는 이름, 대적이라는 이름, 그리고 마침내 넓은 곳이라는 이름입니다. 두 번을 양보한 다음에야 넓은 자리가 왔습니다.

이 장의 중심은 18절입니다.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새 우물을 찾아 나서지 않았고 이름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도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 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부른 아들에게 하나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제단이 먼저였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한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25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그다음에 우물을 팠습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집이 그다음이고 생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자주 뒤집어 예배를 남는 시간에 둡니다.

이삭이 얻은 물은 메우면 막히고 마시면 다시 목마른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다른 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요 4:14). 누구도 메울 수 없는 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여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메워진 우물 하나를 다시 파십시오. 끊어진 기도든 놓아 버린 말씀이든 좋습니다.

기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방법을 주시기 전에 주님 자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물라 하신 자리에서 견디게 하시고, 제 삶의 순서를 예배부터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7일 · 창세기 27장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오늘의 본문

창세기 27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눈이 어두워진 한 노인이 남은 감각을 모두 동원합니다. 만져 보고 들어 보고 맛보고 냄새까지 맡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확인했는데 결론이 틀렸습니다. 더 아픈 것은 그가 답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 즐기는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합니다(4절). 그에게 모자랐던 것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자기 입맛과 판단보다 위에 두는 자세였습니다.

확인은 했으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왔다고 하자 이삭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묻고, 어찌 그리 속히 잡았느냐고 묻습니다. 눈은 멀었지만 판단력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라 하여 만져 본 뒤에 그가 한 말이 이 장의 열쇠입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귀는 정확했습니다. 진실을 잡아낸 것은 귀였는데 그는 손의 감촉을 택했고, 성경은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고 적습니다(23절).

감각이 말씀의 자리에 앉을 때

이삭이 실패한 것은 눈이 멀어서가 아닙니다. 남은 감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검토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기도해 보니 마음이 편하다고 하고, 이 길로 가니 문이 열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느낌이 말씀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삭도 별미를 먹고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다.

에서가 돌아와 속은 것이 드러나자 이삭은 심히 크게 떱니다. 그러면서도 축복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33절). 에서에게 주려던 복이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쪽으로 갔다는 것을 그는 떨면서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축복을 이삭의 믿음으로 셉니다(히 11:20).

속여서 얻은 뒤에

축복을 받은 쪽이라고 해서 그 방법이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 앞에서 형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말했고, 어찌 그리 속히 잡았느냐는 물음에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다 댔습니다(20절). 일을 꾸민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고까지 말합니다. 약속을 들은 사람이 그 약속을 꾀로 거들려 한 것입니다.

남은 것은 흩어진 가정이었습니다. 형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아우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습니다(41절). 리브가는 몇 날만 피해 있으라며 아들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하던 어머니는(45절) 곁에 두고 아끼던 아들을 먼 길로 떠나보냅니다. 그 뒤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알아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졌고 음성을 들었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요 1:10)라고 성경은 적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해 쓴 것을 풀어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야 눈이 밝아져 알아보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 24:32).

알아보는 힘은 감각에서 오지 않고 말씀을 여시는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오늘의 적용

오늘의 첫 판단 하나를 손으로 더듬어 정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물은 다음에 정하십시오.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로 옳다고 여긴 결정이 있는지 오늘 다시 살피십시오.

기도

말씀으로 눈을 여시는 하나님, 확인할 것을 다 확인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저를 아십니다. 제 손과 느낌이 주의 말씀 위에 앉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편한 것을 주의 허락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풀어 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8일 · 창세기 28장

하나님이 기억하신 밤

오늘의 본문

창세기 28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하루가 나중에 인생의 이정표로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형의 손을 피해 도망친 사람이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들판에 눕습니다. 돌을 베고 누운 그 밤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 됩니다.

아무 데나였지만 그곳이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의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입니다(10절). 11절의 “한 곳에 이르러는”이라는 말은 도착했다기보다 뜻하지 않게 닿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미리 잡아 둔 숙소가 있었을 리 없고, 걷다가 해가 져서 걸린 자리입니다.

원문에서 11절은 이 자리를 가리키는 한 낱말을 세 번 되풀이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한 곳, 그 곳, 거기로 옮겼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무 데나였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정해진 자리처럼 말합니다.

세워진 사다리, 잠든 사람

꿈에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 단단히 세워 두었다는 말입니다.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야곱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세운 것도 하늘 문을 연 것도 그가 아닙니다. 잠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도망자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손자에게 그대로 건네십니다. 네가 누워 있는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조건은 한 줄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금 한 일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뒤 도망치는 길이었습니다. 책망이 먼저 나올 법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자격을 따지셨다면 이 밤에 그가 들을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에서 깬 야곱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16절).

하나님이 그 밤에 처음 그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셨는데 그가 몰랐습니다. 혼자 도망치는 줄 알았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그에게 먼저 온 것은 안도보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17절).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떨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그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루스라 하던 그곳은 그날부터 벧엘, 곧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은 하나님이 방금 하신 약속을 되받은 말입니다.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십분의 일을 드리겠다는 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라는 말 뒤에 옵니다(22절). 약속이 먼저 있었고 서원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은 은혜받은 날보다 잊은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끝이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이 밤을 잘 기억하면 지키시겠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끄시는 분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는 채 다시 걷습니다. 그가 들고 가는 것은 이 약속 하나입니다. 가장 초라했던 밤의 돌베개 자리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주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다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야곱이 본 사다리는 그 밤 이후로 창세기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오랜 뒤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 장면을 꺼내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요 1:51).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그 자리에 사다리 대신 인자가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닿았습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기억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딤후 2:13).

오늘의 적용

오늘 하루를 내가 붙들어야 한다는 마음 대신, 이미 붙들려 있다는 고백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해 놓고 잊어버린 약속이 있다면 오늘 하나를 꺼내어 다시 세우십시오.

지금 가장 초라하게 느껴지는 자리를 하나 떠올리고, 그 자리가 훗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주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제가 잊은 날에도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연히 걸린 자리에도 주님이 먼저 서 계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제 힘으로 붙들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이미 붙드신 손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을 이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9일 · 창세기 29장

보시는 하나님, 찬송으로 돌아선 자리

오늘의 본문

창세기 29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
>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
>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
>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
>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
>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
>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
>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속이고 도망친 사람이 이번에는 속습니다. 칠 년을 일하고 얻은 사람은 그가 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이 오래 붙들고 있는 쪽은 야곱의 억울함보다, 자기가 고르지 않은 자리에 놓인 한 여인입니다.

속인 사람이 속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했습니다(20절). 혼인하고 아침에 보니 레아였습니다. 그는 라반에게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느냐고 따집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7장과 나란히 놓고 읽게 됩니다. 그는 어두워 보지 못하는 아버지 앞에서 형인 척했고, 이번에는 어두운 밤에 자기가 속았습니다. 라반이 든 이유도 묘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고 합니다(26절). 형보다 먼저 축복을 받아 간 아우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성경은 적지 않았습니다.

늘 두 번째인 자리, 그리고 또 하나의 시선

레아는 아버지의 계략에 떠밀려 결혼했습니다. 시작부터 자기가 고르지 않은 자리였고, 곁에는 늘 더 사랑받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그대로 적습니다(30절). 늘 두 번째라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이 장을 다르게 읽습니다.

집안의 시선은 온통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31절이 시선 하나를 더 알려 줍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 보시고' 는 눈에 들어왔다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사정을 살피고 손을 쓰신다는 뜻이어서, 곧바로 그의 태를 여셨다는 말이 뒤따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부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같은 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한 말이 여기서도 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고전 1:27).

이름마다 새겨 놓은 갈망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에 마음을 새겼습니다. 첫째에게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고, 둘째에게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고, 셋째에게는 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보셨다고, 들으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첫째와 셋째에서 문장의 끝은 남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의 사랑을 얻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셋이 되도록 그는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돌아선 자리

넷째를 낳고 문장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남편의 이름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형편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덜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가 바라보는 쪽입니다. 성경은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는 말로 이 장을 닫습니다.

이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다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 이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았습니다(계 5:5).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넷째 아들에게서 메시아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이사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사 53:3). 예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를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그 버림받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사 53:5).

기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시선이 저를 지나칠 때에도 주님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형편이 그대로인 오늘, 사람의 이름보다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를 먼저 지나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0일 · 창세기 30장

듣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본문

창세기 30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라헬이 소리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언니에게는 아들이 넷인데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30장은 그 절박함이 만들어 낸 다툼의 기록이고, 그 다툼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 박혀 있습니다.

남편에게 소리친 말

라헬이 소리친 상대는 남편이었습니다. 야곱은 성을 내며 대답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옳은 말이 아픈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창 25:21). 야곱은 성을 냈습니다. 옳은 말을 알았지만 그 말을 들고 하나님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합환채를 얻은 쪽, 아들을 얻은 쪽

라헬은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얻고, 레아도 지지 않고 실바를 들여보냅니다. 마침내 르우벤이 들에서 얻어 온 합환채를 두고 두 자매가 남편과의 하룻밤을 흥정합니다.

결말이 묘합니다. 합환채를 손에 넣은 쪽은 라헬이었는데 아들을 얻은 쪽은 레아였습니다. 효험이 있다고 믿던 것이 정작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비웃지 않고 그저 그렇게 적어 둡니다. 아이는 늘어났지만 자매 사이의 골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는 레아의 말에(15절) 그 골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주어

이 장을 관통하는 주어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셨다고 하고(6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하고(17절), 마침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22절). 사람의 계략이 이야기를 채우는 것처럼 보여도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라도 리브가도 그랬고 이제 라헬도 같은 순서를 지납니다.

여기 '생각하신지라'는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할 때와 같은 말입니다. 잊었다가 떠올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얻은 라헬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말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짓습니다.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이 받고 나서 이제 됐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구합니다.

훨씬 큰 계획 안에서

라헬이 구한 것은 아들 하나를 더하시는 일이었습니다(24절). 하나님이 이 집에 더하고 계신 것은 그보다 컸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시기와 흥정으로 어지러운 이 집에서 그 약속의 자손이 하나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그 순간의 응답보다 늘 큽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자녀 없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기억하셨고 낮은 자리의 마리아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갈 4:4)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갈 4:5). 우리의 가장 깊은 결핍이 거기서 채워졌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으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지금 조급함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 하나를 오늘은 손에서 내려놓고 기다려 보십시오.

아픈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하기 전에, 오늘은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곁에 잠깐 앉아 있으십시오.

응답이 더딘 기도 하나를 두고, 침묵 중에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만 붙들고 오늘 다시 아뢰십시오.

기도

듣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제 손으로 상황을 만들어 내려는 조급함을 아십니다. 사람에게 쏟아 놓기 전에 주께 먼저 아뢰게 하시고, 주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 결핍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크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차매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1일 · 창세기 31장

그때는 몰랐던 하나님

오늘의 본문

창세기 31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
>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
>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
>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
>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
> **13절** 나는 벧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
>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
>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이십 년이 지났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친 청년이 두 아내와 자식들과 많은 가축을 거느린 장년이 되었습니다. 이 장은 그 이십 년의 결산을 라반 아들들의 입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는 말입니다. 외삼촌의 안색도 전과 같지 않습니다.

돌아가라 하신 근거

억울한 오해와 싸늘해진 관계 속에 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3절).

떠나자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벧엘의 하나님이라 밝히시며,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하던 그 밤을 야곱에게 짚어 주십니다(13절). 이십 년 전 도망자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형편이 좋아서 따르는 순종은 형편이 바뀌면 같이 무너지지만, 이미 하신 약속에 기대어 떼는 걸음은 라반의 안색이 어떠하든 뗄 수 있습니다.

열 번 바뀐 품삯

들로 아내들을 불러낸 야곱은 라반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꾼 일을 꺼냅니다. 점 있는 것이 네 삯이라 하면 양 떼가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삯이라 하면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습니다(8절).

그 세월을 지나는 동안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를 실감하며 살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그 스스로 말합니다(40절). 돌아보는 자리에 와서야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5절).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늦게 도착할 때가 많습니다. 지나는 동안에는 손길이 보이지 않다가, 다 지나고 나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으셨음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뒤쫓는 사람의 입도 붙드셨습니다.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이르십니다(24절). 라반은 이레 길을 쫓아왔고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그 손을 쓰지 못합니다. 나를 해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세운 돌무더기

이 장은 두 사람이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넘어가 해하지 않기로 언약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화해라기보다 경계선을 긋는 일에 가깝습니다.

모든 관계가 따뜻한 화해로 끝나지는 않고, 어떤 관계는 여기까지가 최선입니다. 창세기는 이 어정쩡한 결말을 실패라 부르지 않고 그대로 적어 둡니다. 다만 돌무더기에 붙인 이름 하나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49절). 사람 사이가 끝내 개운하지 않을 때에도 두 사람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까지 오게 한 손

라반 앞에서 야곱은 이십 년을 한 문장으로 셈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는 것입니다(42절). 빈손으로 떠났던 사람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 까닭을 그는 자기 솜씨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이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온 말이 3절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깊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마 1:23).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던 하나님을 뒤늦게 고백하게 되는 길도 예수님 안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적용

지난 몇 해 동안 억울했던 일 하나를 다시 짚어 보고, 그 안에서 지켜 주신 흔적을 하나만 찾아 적으십시오.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화해를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두 사람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한 걸음도 떠나지 않으셨음을 압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는 저에게, 나중에 고백하게 될 그 손길을 오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2일 · 창세기 32장

언약을 붙들고 드린 기도

오늘의 본문

창세기 32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
>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
>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
>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
>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
>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
>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
>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이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식이 옵니다. 형이 사백 명을 거느리고 마중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십 년 전 도망친 이유가 바로 그 형이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계산을 했고, 계산을 마친 다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첫 긴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뜻밖의 응답이 같은 밤 얍복 나루에서 옵니다.

계산부터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길 가는 야곱을 만나는 장면으로 열립니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하며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부릅니다(1-2절). 하나님의 군대를 제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백 명이라는 숫자를 듣자 심히 두렵고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사람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게 하자는 것입니다(8절). 이십 년 동안 몸에 밴 방식입니다. 창세기는 이 계산을 나무라는 말 없이 적고, 바로 이어 기도를 적습니다. 순서가 아쉽기는 해도 그는 계산으로 끝내지 않고 무릎까지 갔습니다.

약속으로 열고 약속으로 닫았습니다

기도의 첫마디는 자기 사정이 아닙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고, 주께서 내게 돌아가라 명하셨다고 아룁니다(9절). 제가 이 길에 선 것은 주님의 명령 때문이니 이 길에서 벌어지는 일도 주님이 맡아 달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끝도 약속입니다. 네 씨를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도로 읽어 드립니다(12절). 형이 와서 처자들을 치면 그 약속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간구가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 달라고 이름을 대고,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난다고 두려운 까닭까지 밝힙니다(11절). 두려움은 여전히 기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에서 가장 낯선 말은 10절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평생 자기 몫을 계산해 챙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 집에서도 제 재산을 불려 나왔습니다. 그런 그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십 년 전에는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 두 떼를 자기 수완이라 부르지 않고 은총과 진실하심이라 부릅니다. 야곱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 한 절에서 봅니다.

꺾어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친 야곱은 다시 손을 씁니다. 염소와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를 떼로 나누어 앞서 보내면서,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뒤에 대면하면 혹시 받아 주리라 셈합니다(20절). 밤중에는 가족과 소유를 다 얍복 나루 건너로 보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합니다. 그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치자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길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붙듭니다(26절). 복을 제 손으로 가로채 온 사람이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버지 앞에서 형의 이름을 댔던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야곱, 곧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정직하게 말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전되었다는 뜻입니다(30절). 형의 손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보다 먼저 찾아오셨고, 그를 강하게 만드시는 대신 꺾으셨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는 절었습니다(31절). 이십 년 전 두 발로 도망쳤던 사람이 한 발을 절며 형에게 나아갑니다.

또 하나의 밤

성경에는 홀로 기도한 밤이 또 있습니다. 겟세마네입니다. 야곱은 나를 건져 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기도하셨습니다.

야곱은 형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아버지께서 들으셨으나(히 5:7) 그 밤에 잔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건져지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건짐받았습니다.

오늘의 적용

오늘 기도를 내 사정보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손에 가진 것 하나를 주님의 은총이라고 소리 내어 불러 보십시오.

이름조차 꺼내기 두려운 일 하나를 오늘은 정확하게 아뢰고, 기도의 끝을 약속으로 닫으십시오.

기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계산부터 하고 나서야 무릎을 꿇는 저를 아십니다. 제 사정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붙들게 하시고, 가진 것을 제 수완이라 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꺾어서 응답하실 때에도 그 손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뚝이는 걸음으로라도 주께서 가라 하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의 밤을 지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3일 · 창세기 33장

돌려드린 복, 아직 가지 않은 길

오늘의 본문

창세기 33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17절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18절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사백 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앞에 야곱이 섰습니다. 뒤에 숨지 않고, 절뚝이는 다리로 가족들보다 앞서 나가 일곱 번 몸을 굽힙니다. 형이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둘이 함께 웁니다. 밤새 기도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뀐 것은 형의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이 강해져서 풀린 일이 아닙니다. 그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응답하셨고, 야곱도 그것을 압니다. 형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10절).

형이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고 묻자 야곱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32장의 밤에 그의 머릿속은 한 떼가 당하면 남은 한 떼라도 살리자는 셈으로 가득했습니다. 같은 식구들인데 밤이 지나자 부르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훔친 낱말을 손에 들고

에서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고 사양합니다. 야곱은 강권합니다. 원문을 보면 앞에서 줄곧 예물이라 부르던 것을 11절에서는 '내 복'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이십 년 전 아버지를 속여 빼앗은 것이 바로 그 복이었습니다. 그는 훔친 낱말을 손에 들고 형 앞에 서 있습니다. 회개가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재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가 돌려준 것은 재산이고 언약은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사람이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가로챈 방식이었고, 그는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옳은 일입니다. 다만 그 돌려준 복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의 최선은 남은 것을 되돌려 놓는 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으셨는데 자기 복을 전부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하셨습니다(갈 3:13-14).

아직 벧엘이 아닙니다

형이 동행을 제안하지만 야곱은 사양하고 숙곳으로 가서 집을 짓습니다. 그 뒤 세겜에 이르러 밭을 사고 제단을 쌓습니다.

18절은 그가 평안히 이르렀다고 적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서원할 때 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다 이루셨으니 이제 야곱이 서원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는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래도 그곳은 세겜입니다. 서원한 벧엘까지는 길이 더 남아 있는데, 야곱은 장막 친 밭을 값 주고 사서 거기 머뭅니다.

오늘의 적용

미안하다는 말에서 멈추지 말고, 돌려줄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만 적어 보십시오.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주께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풀린 일이 많음을 압니다. 회개가 마음에서 손까지 내려오게 하시고, 좋은 자리에 주저앉아 가라 하신 자리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복을 전부 내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4일 · 창세기 34장

거룩한 표징이 무기가 될 때

오늘의 본문

창세기 34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25절 제삼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이 장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른한 절 내내 말씀하시지도 나타나시지도 않고, 기도도 제단도 없습니다. 창세기 33장 끝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장에서는 그 이름이 들리지 않습니다.

멈춘 자리에서

야곱이 가기로 한 곳은 벧엘이었습니다. 그는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밭을 샀습니다. 잠깐이면 되겠지 하고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욕을 당합니다. 7절은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적습니다. 한 사람이 당한 일을 온 집의

일로 적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탓이라는 말은 본문에 없습니다. 부르신 자리에 이르기 전에 멈춘 곳에서 온 집이 흔들렸다는 것만 그대로 보여 줍니다.

아버지는 잠잠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습니다(5절). 그 빈자리를 아들들이 채웁니다. 13절은 그들이 속여 대답했다고 적는데, 이 '속이다'는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다고 할 때 쓰인 말입니다. 속임수로 복을 얻은 아버지가 속임수를 쓰는 아들들을 마주합니다. 창세기는 두 장면을 같은 낱말로 적어 둡니다.

아들들이 고른 방법은 할례였습니다. 너희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한 민족이 되겠다고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 함정이 되었습니다. 제삼일, 성읍 남자들이 아직 아파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시체 있는 성읍에 들어가 가축과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습니다.

누이가 당한 일에 노한 것은 마땅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칼까지 옳아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신앙의 언어가 사람을 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장이 보여 줍니다.

나만 나오는 말

30절에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랍니다. 그 말이 온통 '나'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고, 나로 악취를 내게 하였고,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딸이 당한 일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들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옳으냐고 되묻습니다. 이 장은 그 물음표에서 끝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 없이 끝난 장, 그러나

나쁜 소식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무 소식도 없는 시간입니다. 이 장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회개했다는 말도 아들들이 뉘우쳤다는 말도 없이 하나님의 침묵만 남았습니다.

이야기는 34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은 하나님이 먼저 입을 여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첫마디는 심판이 아닌 부르심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누이의 수치를 갚으려고 칼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요 18:11). 남을 쳐서 수치를 씻는 길을 버리시고 우리의 수치를 친히 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 물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대답 없이 끝나 버린 자리에서도 먼저 입을 여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해야 할 자리에서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무기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칼을 거두시고 저를 위해 잔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5일 · 창세기 35장

이제야 벧엘로 올라갑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35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 세겜에 장막을 쳤습니다. 벧엘에서 서원한 사람이 가나안에 돌아온 뒤로도 벧엘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그친 것은 아니어서 세겜에도 제단은 있었습니다. 약속한 자리로 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창세기 34장의 일이 벌어져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미루어 둔 약속을 먼저 꺼내시는 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꺼내신 말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에 서원을 지키라는 독촉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네가 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1절).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던 밤에 내가 너를 찾아갔던 그 자리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책임을 따져 묻기 전에 처음 만난 자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묻고 갈아입고 올라갑니다

야곱은 곧바로 짐을 싸지 않습니다. 먼저 집안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던 그 집에 이방 신상이 있었습니다. 오래 데리고 다니다 보니 더는 낯설지 않게 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내놓은 것 중에는 귀고리도 있었는데, 당시에 악한 것을 막아 준다고 믿던 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까지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여기던 물건입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다시 주울 수 없는 곳에 둔 것입니다.

길을 떠날 때 야곱이 창세기 34장 끝에서 두려워하던 추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5절).

엘벧엘

벧엘에 이른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벧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옛 이름 앞에 하나님을 한 번 더 붙여, 벧엘의 하나님이라 부른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장소의 이름을 불렀고 늙어서는 그 장소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이 집에서 그 집의 주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얍복 나루에서 이미 주신 이름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며 후손과 땅의 약속도 다시 주십니다. 우상을 묻은 값으로 받은 상이 아닙니다. 벧엘의 첫 밤부터 하나님이 홀로 지고 오신 약속입니다.

벧엘의 길에 이어진 무덤

이 장은 벧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벧엘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묻고, 에브랏 길에서는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숨이 떠나가는 어머니는 아이를 베노니라 불렀고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죄를 짓습니다. 헤브론에서는 이삭이 백팔십 세로 숨을 거두어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합니다. 약속을 다시 받은 뒤에도 야곱의 길에는 무덤과 눈물이 이어졌고, 그 길에서 그를 붙든 것은 다시 확인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뵈려고 야곱은 묻고 갈아입고 벧엘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벧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요 1:14). 무덤이 이어지는 길 위로 오신 것입니다. 우상을 묻는 일도 옷을 갈아입는 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은혜에 응답하여 걷는 길입니다.

오늘의 적용

밀어 둔 약속이 자꾸 떠오른다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첫걸음을 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까지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놓아 묻어 버리십시오.

기도

벧엘의 하나님, 제가 미루어 둔 약속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책임을 물으시기 전에 처음 만난 자리를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낯설지 않게 된 것들을 다시 주울 수 없는 곳에 묻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6일 · 창세기 36장

에서에게도 산을 주신 하나님

오늘의 본문

창세기 36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절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이름들의 목록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의 족보인데, 그 후손에게서 족장들이 나오고 왕들이 납니다. 축복을 받은 쪽의 자손은 여전히 천막에 삽니다. 이것이 공평한가 하는 물음을 안고 읽게 되는 장입니다.

아무도 그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았고, 가축과 재물을 다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세일산으로 갑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는 까닭은 아브라함을 떠나던 롯을 떠오르게 합니다(7절). 하나님도 야곱도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언약 밖으로 나가는 길은 대개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는 일은 드물고, 한 번씩 선을 넘는 일이 되풀이되다가 어느새 멀리 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에서를 두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나중에 축복을 이어받으려 하였으나 버린 바가 되었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였으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히 12:17).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뒤늦은 눈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에서가 흘린 눈물은 죄를 떠나려는 눈물이 아니라 놓친 복을 아까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돌이키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물리치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교회를 향한 경고로 줍니다. 가볍게 넘긴 은혜를 나중에 눈물로 되찾을 수 있으리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일산도 하나님이 주신 몫입니다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에게 세일산을 두고, 내가 그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신 2:5). 에서가 힘으로 차지한 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몫이었습니다. 사람이 제 뜻대로 걸어가도 하나님의 지도 밖으로는 나가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이 잘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지거든 이 한 줄을 기억하십시오.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왕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31절은 읽기에 아픈 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는 이미 왕들이 있었고, 이름이 오른 왕만 여덟입니다. 그 시간에 야곱의 집은 천막을 치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는 언약의 자녀가 뒤처지고 언약 밖의 사람이 앞서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에돔이 누린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만한데, 아들을 내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실 것이 그보다 작을 리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받은 것을 세고 있으면 눈이 남의 손으로 가고, 약속하신 것을 세면 눈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세일산을 주신 손과 아들을 내어 주신 손이 같은 손입니다. 에돔의 왕들은 이름만 남고 사라졌지만, 천막에 살던 쪽에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오늘은 받은 것을 세지 말고, 약속하신 것 한 가지를 적어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기도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언약 밖의 사람에게도 몫을 주시는 넓은 손을 봅니다. 남의 형통 앞에서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손에 든 것의 크기로 주의 사랑을 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것을 이미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부 · 요셉과 형제들

제37일 · 창세기 37장

꿈은 꾸었는데 구덩이는 꿈꾸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37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
>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
>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
> **19절**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
>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
>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
> **28절**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열일곱 살 소년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좋은 옷을 입고 꿈까지 꾸는 소년입니다. 같은 장 안에서 그 소년은 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이십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꿈으로 가는 길에 구덩이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옷과 꿈

채색옷은 손목에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그 시절 목자의 옷은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오는 작업복이었으니, 요셉의 옷은 일을 시키는 사람의 옷인 셈입니다. 야곱은 사랑을 옷으로 표현했고 그 옷은 형들이 매일 아침 눈으로 확인하는 표지판이 되었습니다. 4절은 형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적습니다. 인사조차 건네지 못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다르게 대하면 아이들은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거기에 꿈이 얹힙니다. 밭에서 형들의 곡식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에게 절합니다. 요셉은 두 번 다 그대로 말했고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도 꾸짖었습니다.

다만 11절은 같은 자리에서 갈린 두 반응을 나란히 적습니다. 형들은 시기했고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시기한다는 말은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는 것이고, 간직한다는 말은 소중한 것을 지키듯 마음에 두고 곱씹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갈립니다.

심부름 가던 길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가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심부름입니다.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헤브론 골짜기를 떠납니다. 세겜에 가 보니 형들이 없습니다. 들에서 방황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물어 도단까지 뒤를 따라갑니다(15-17절). 돌아가도 되었을 길을 더 걸어서 형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가 구덩이에 간 것은 벌 받을 일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심부름을 끝까지 하려다 이른 자리입니다. 지금 어두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잘못의 증거는 아닙니다.

물이 없는 빈 구덩이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르우벤이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말려 목숨은 건집니다. 요셉이 이르자 형들은 채색옷부터 벗깁니다. 사랑받았다는 증거를 먼저 빼앗은 것입니다.

24절은 그 구덩이가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고 적습니다. 마시고 견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끝나지도 않는 자리입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형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25절).

이스마엘 사람들의 낙타 행렬이 지나가자 유다가 동생을 팔자고 말합니다. 값은 은 이십이었습니다. 훗날 율법이 정한 다섯 살에서 스무 살 사이 남자의 몸값이 은 이십 세겔입니다(레 27:5). 형들은 동생을 시세대로 넘겼습니다.

위로를 받지 않은 아버지

형들은 숫염소를 죽여 그 피에 옷을 적시고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고 묻습니다. 형의 옷과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 아들의 옷과 염소 피에 속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애통합니다. 모든 자녀가 위로했으나 그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겠다고 합니다(35절).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그를 꿈 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도 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는 뒤의 장들이 말해 줍니다. 이 장은 꿈 꾸는 자가 죽지 않고 애굽으로 끌려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는 데서 멈춥니다.

하나님이 그 구덩이 곁 어디에 계셨는지 이 장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다가 팔린 요셉의 모습은 훗날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가 은 삼십에 팔리셨습니다(마 26:15). 예수님은 물 없는 구덩이보다 깊은 죽음에까지 내려가셨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같은 소식 앞에서 내 안에 끓어오르는 것이 있는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는지 오늘 한 번 살피십시오.

가까운 사람 가운데 편안하게 말을 건네지 못하는 상대가 있다면, 오늘 짧은 인사 하나를 먼저 건네십시오.

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꿈은 주시고 그 길에 구덩이도 있음을 이 아침에 봅니다. 어두운 자리에서 제 잘못만 세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에게 오셨다가 팔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8일 · 창세기 38장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38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
>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
>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
>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
>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
>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요셉이 팔려 애굽으로 끌려간 이야기 다음에 창세기는 갑자기 시선을 형 유다의 집안으로 옮깁니다. 거기에는 예배도 제단도 없고, 우리가 가장 덮고 싶어 할 법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장을 지우지도 미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려간 사람

1절은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고 적습니다. 내려간다는 말이 지형만 가리키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언약의 집에서 발을 빼고 옮겨 가는 걸음처럼 읽힙니다.

유다는 창세기 37장에서 동생을 팔자고 먼저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 뒤에 형제를 떠났는데, 자리를 옮긴다고 지나온 일이 거기 남지는 않습니다. 그가 덮고 온 것은 그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혼인해 세 아들을 얻었으나, 첫째 엘과 둘째 오난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차례로 죽습니다.

미뤄 둔 약속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서 수절하라고 합니다. 말은 약속입니다. 11절이 그 속마음을 그대로 밝힙니다.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다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미뤄 두었습니다. 거절을 당한 사람은 다음 길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룸을 당한 사람은 그 자리에 묶입니다. 다말은 셀라가 장성한 것을 보고도 과부의 의복을 입은 채 아버지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자주 짓는 죄가 이 미룸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석 달쯤 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유다는 곧바로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합니다. 자기 일은 몇 해를 덮어 두던 사람이 남의 일에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일에는 사정을 살피고 남의 일에는 곧바로 판결하는 저울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끌려 나가던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시아버지에게 보냅니다. 당시의 신분증에 해당하는 물건들이고, 유다가 담보물로 맡긴 것들입니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창세기 37장에서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보내며 보소서 하던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그 말을 듣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을 흠 없이 의롭다고 한 말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의무를 알면서도 미룬 자기가 그보다 아래라는 고백입니다. 남 위에 자기를 놓고 판결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터뜨리고 나온 아이

다말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아이에게 산파가 홍색 실을 매어 두었는데, 그 손이 도로 들어가고 아우가 앞서 나옵니다.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는 산파의 말에서 베레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터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대로 오릅니다(마 1:3). 다말의 이름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마태는 계보를 적으면서 굳이 이 여인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을 때 성읍 사람들이 축복하며 부른 이름도 베레스였습니다(룻 4:12). 덮고 싶었던 이야기가 축복의 문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유다의 한 문장이 그 집을 족보에 올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막힌 집을 터뜨리고 들어오셨고,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집안을 자기 족보로 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서는 한 문장도 그 은혜가 먼저 찾아온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적용

거절하지 못해 미뤄 둔 일이 누군가를 그 자리에 묶어 두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하나 확인하십시오.

남의 일에 판결이 빨라지는 자리를 하나 떠올리고, 오늘은 하루만 늦추어 보십시오.

가장 덮고 싶은 자리 하나를 오늘 하나님 앞에 열어 놓으십시오.

기도

덮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 가장 감추고 싶은 자리를 주님은 지우지도 미화하지도 않으심을 압니다. 거절 대신 미룸으로 사람을 묶어 두지 않게 하시고, 남 위에 저를 올려놓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덮고 싶은 그 계보를 따라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9일 · 창세기 39장

옷은 두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39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
>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
>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
>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
>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
>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
>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 38장의 유다는 제 발로 형제들에게서 떠나 내려갔습니다. 이 장의 요셉도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끌려서 내려갔습니다. 유다의 장에는 한 번도 없던 문장이 이 장에는 거듭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는 문장입니다.

종의 집에서도 형통이었습니다

2절에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이 술술 풀린다는 뜻으로 읽기 쉬운데, 막힌 데를 뚫고 목적하신 곳까지 그 사람을 밀고 가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말이 붙은 요셉의 자리는 값을 주고 사들인 종의 자리였습니다. 자리는 그대로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창세기는 그것을 형통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의 눈에도 그것이 보였습니다(3절). 요셉이 주인에게 하나님을 설명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장에 되풀이되는 낱말은 손입니다. 주인은 집과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고, 나중에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그의 손에 맡깁니다. 그의 믿음은 맡은 일에서 드러났습니다.

날마다 청하였으나

10절은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고 적습니다. 한 번 크게 몰아치는 시험보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오는 작은 청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요셉은 듣지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기려 들기 전에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가 댄 거절의 이유는 둘입니다. 먼저 주인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고 당신만 금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합니다(9절). 아무도 보지 않는 집 안에서 그는 보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셈에 넣었습니다. 죄를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셈하면 아무도 모를 때는 셈이 맞아 버립니다.

옷을 두고 나왔습니다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자 요셉은 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요셉에게 옷은 두 번 다 불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채색옷은 형들이 벗겨 피를 묻혔고, 스스로 두고 나온 이 옷은 여인의 손에서 그를 고발하는 물증이 됩니다. 옳게 하려고 나온 자리에 불리한 증거가 남았습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았는데도 그는 나왔습니다.

한 칸 더 내려간 자리에서

주인은 그를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넣습니다. 종에서 죄수로 한 칸 더 내려갔습니다.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21절). 23절은 2-3절과 같은 말로 이 장을 닫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리는 더 내려갔는데 함께하신다는 문장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문장이 끊긴 것처럼 들린 자리가 한 번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달리신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마 27:46).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문장을 제자들에게 건네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종의 집과 감옥까지 따라 들어가던 그 문장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거쳐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늘의 적용

날마다 같은 시간에 오는 작은 유혹이 있다면, 이기려 들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는 장치를 오늘 하나 만드십시오.

기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자리가 바뀌지 않아도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형통임을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고 계신 주님을 먼저 셈에 넣게 하시고, 옳게 하고도 오해받는 날에 그 자리에서 나온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0일 · 창세기 40장

그는 잊었고 그분은 기억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40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3절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감옥 안입니다.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이 같은 밤에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풀어 줍니다. 사흘 뒤 한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립니다. 이 장은 살아난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남의 얼굴을 본 사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두 사람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찌하여 오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느냐고 묻습니다(7절). 묻는 쪽의 사정이 훤씬 무겁습니다. 팔려 온 데다 누명까지 썼고, 언제 나갈지도 모릅니다. 자기 아픔에 갇힌 사람은 남의 얼굴을 볼 여유가 없는 법인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말에 그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고 대답합니다. 지금 그에게는 꿈을 푸는 일이 유일한 밑천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자기를 세울 수도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께 돌립니다. 가진 것이 하나뿐인 사람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3절은 두 신하가 갇힌 옥이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고 굳이 한 번 더 적습니다. 왕의 신하가 하필 그 옥에 온 것도, 그 아침에 요셉이 그 방에 들어간 것도 우연처럼 보입니다. 이 만남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 장은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좋은 해석을 들려준 뒤에 요셉은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15절). 해석을 하나님께 돌린 그 입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서로 부딪치지 않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삼키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흘 뒤 바로의 생일에 모든 일이 요셉의 해석대로 됩니다.

23절이 남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했다고 적고 잊었다고 다시 적었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잊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더 그곳에 있어야 할지 이 장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잊힌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고, 이 장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잊었다가 떠올리신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은 요셉의 이 시간을 두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시 105:19) 하고 적습니다. 관원장이 잊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이 요셉의 부탁과 닮은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눅 23:42). 세상이 다 잊은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탁에 그날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제 사정이 무거운 날에도 곁 사람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잊힌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님을 오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기억해 달라는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1일 · 창세기 41장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41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1절 만 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 가에 서 있는데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만 이 년 후라는 말로 이 장이 시작합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힌 그 옥에서 이 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 이 년이 지나자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요셉은 옥에서 나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서더니, 그날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만 이 년 후에

그 이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본문에는 한 줄도 없습니다. 만 이 년 후라는 말이 전부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대개 이렇게 기록됩니다. 지나고 보면 한 문장인데 지나는 동안에는 하루가 한 해 같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아무도 풀지 못하자, 그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 냅니다. 14절은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다고 적습니다. 이 년 동안 아무도 서두르지 않던 일이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일이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사람들이 알아서 서두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선 요셉의 첫마디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16절).

이 년을 기다린 사람에게 온 기회였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사람의 순서인데 그는 첫 문장에서 자기를 지웁니다. 꿈을 풀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고 말합니다(32절). 바로도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겠느냐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두 아들의 이름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째는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기억이 지워졌다는 말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아들의 이름에 아버지의 집을 넣어 부른 사람이 그 집을 잊었을 리 없습니다. 그 기억이 더는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둘째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애굽을 축복의 땅이라 하지 않고 수고한 땅이라 불렀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지나온 고생을 좋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고생은 고생이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이 장은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다는 말로 닫힙니다. 옥에서 보낸 한 사람의 이 년이 한 나라를 살리고 온 세상을 먹이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그 이 년 동안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창고를 열어 곡식을 팔았고, 그 곡식을 먹은 사람들은 다시 주렸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요 6:35).

오늘의 적용

기회가 왔을 때 첫 문장에서 나를 세우지 마십시오. 오늘 한 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대로 말해 보십시오.

지나온 고생을 좋게 꾸미지도 말고 그것에 매이지도 마십시오. 그 땅의 이름을 정직하게 부르되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함께 부르십시오.

기도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이 년이 하루로 끝나는 것을 보며 제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저를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2일 · 창세기 42장

알아보지 못한 얼굴, 자루에 돌아온 돈

오늘의 본문

창세기 42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1절** 그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
>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
>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
>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
>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
>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
>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
>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 41장 끝에서 각국 백성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줄에 낯익은 얼굴 열 사람이 섭니다. 요셉의 형들입니다. 아우를 구덩이에 던진 지 스무 해가 넘었고, 그들은 그 일을 묻어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채 아우 앞에 엎드리는 장면에서 시작해, 곡식값이 자루에 도로 들어온 것을 보고 떠는 자리까지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1절에서 늙은 야곱이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다 들은 뒤인데도 다 큰 아들 열 사람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곡식은 바라본다고 오지 않으니 누군가는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내려간 자리에서 형들이 총리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이 열일곱에 꾸었던 그 꿈입니다. 9절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고 적습니다. 그 꿈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던 사람 앞에서, 그가 손쓴 적 없는 기근을 통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알아본 사람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8절). 7절의 ’ 모르는 체하다’와 8절의 ’ 알아보다’는 히브리어로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카르입니다. 한 낱말이 한 자리에서 정반대로 쓰였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눈앞의 사람은 애굽 옷에 애굽 말을 하는 총리였으니 형들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절이 나란히 놓인 데는 뜻이 있습니다. 알아보는 쪽은 언제나 요셉이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 예수님도(요 1:11) 그러하셨습니다.

그들이 알아본 것은 자기 죄였습니다

사흘을 갇힌 뒤에 형들의 입이 열립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21절).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라는 말은 창세기 37장에 한 줄도 없습니다. 구덩이에서 아우가 울며 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야 형들의 입으로 처음 듣습니다.

묻어 둔 죄는 기록되지 않았을 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통역을 세워 두었으니 안심하고 자기들끼리 말했는데, 그 말을 다 알아듣는 사람이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결박합니다(24절).

자루에 도로 들어 있던 돈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이 자루를 풀었더니 곡식값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28절) 하며 그들은 떨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것이 그들에게는 함정으로 보였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와서 자루를 쏟으니 자루마다 다 그랬습니다. 돌아온 돈이 많아지자 두려움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집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36절). 그 셈은 틀렸습니다. 요셉은 살아 있었고 시므온도 살아 있었습니다. 다 잃었다고 셈하던 그때 야곱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돌려준 돈은 형들 자신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은 우리가 낸 값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오늘의 적용

몇 달째 바라보고만 있는 일에 오늘 한 걸음만 내려가십시오.

오래 묻어 둔 이름 하나를 오늘 하나님 앞에 꺼내 놓으십시오.

다 잃었다고 셈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셈이 틀렸을 가능성을 오늘 열어 두십시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몰라볼 때가 많았지만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몰라보신 적이 없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보고만 있던 저를 일으켜 주시고, 오래 묻어 둔 이름을 아버지 앞에 꺼내 놓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잃었다고 셈하는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낼 수 없었던 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3일 · 창세기 43장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오늘의 본문

창세기 43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 42장 끝에서 야곱은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며 무너졌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는 르우벤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3장에서 같은 장면이 다시 벌어집니다. 기근은 그치지 않았고 가져온 곡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다시 가서 양식을 사 오라고 해도 형제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베냐민 없이는 그 사람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만 흐르고 그 시간만큼 집안의 양식도 줄어듭니다. 문제를 다 알면서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던 그 시간에 유다가 입을 엽니다.

남을 건 담보와 나를 건 담보

창세기 42장에서 르우벤은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죽이는 일이 아들을 잃는 아픔을 조금도 덜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9절). 담보로 옮긴 히브리어 아라브는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대신 갚겠다고 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함부로 서 주지 않는 것이 보증입니다. 유다는 돈도 아닌 사람의 목숨이 걸린 자리에 자기 자신을 겁니다.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가 영원히 죄를 지겠다고 합니다.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 차이였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형제를 팔자고 했던 사람, 38장에서 며느리 앞에 부끄러움을 당했던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그에게도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야곱은 마침내 움직입니다.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담고, 갑절의 돈을 준비시키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유다의 담보를 받고도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준비를 다 마친 뒤에 이 말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14절).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는 집을 떠나던 날 아버지 이삭이 빌어 준 이름이고 벧엘에서 하나님이 친히 밝히신 이름입니다(28:3, 35:11). ’잃으리로다’는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상실을 가리키는 무거운 말입니다. 야곱은 그 말을 자기 입으로 미리 해 봅니다. 예물과 갑절의 돈으로도, 유다의 담보로도 끝내 막을 수 없는 자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사람이 남은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려워하며 들어간 집에서 잔치를 받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그들은 자루에 돌아왔던 그 돈 때문에 잡혀 들어가는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청지기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23절). 그리고 시므온이 풀려 나옵니다.

두려워하며 들어간 집에서 그들은 발 씻을 물을 받고, 나귀는 먹이를 받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복받쳐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나옵니다. 상이 차려지고 형제들은 나이 순서대로 앉혀진 것을 보며 서로 이상히 여깁니다(33절). 잡으려는 손인 줄 알았던 것이 먹이시는 손이었습니다.

베냐민이 그 상에 앉기까지 유다가 자기를 걸었습니다. 유다의 담보는 아직 말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전합니다(히 7:22). 예수님은 말로만 서지 않으시고 자기 몸으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값을 힘입어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상 앞에 앉습니다.

오늘의 적용

누군가를 안심시키려 할 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고, 내가 질 몫을 분명히 말하십시오.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남을 앞세우고 저는 뒤로 숨으려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게 하시고, 제 힘으로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자리는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며 들어간 자리가 먹이시는 자리였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4일 · 창세기 44장

찾아내신 죄, 대신 서는 사랑

오늘의 본문

창세기 44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 가니라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28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 43장에서 유다는 아버지 앞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하고 자기를 걸었습니다. 44장은 그 말이 시험대에 오르는 자리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형제들이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뒤에서 사람이 쫓아옵니다. 스물두 해 동안 덮어 두었던 일이 이 아침에 드러납니다.

자루에서 잔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 각 사람의 자루에 곡식과 돈을 채우고 막내의 자루에는 자기 은잔을 넣게 합니다. 아침이 밝아 형제들이 떠나고, 성읍에서 멀리 가기도 전에 청지기가 뒤쫓아 옵니다.

형제들은 당당합니다. 지난번 자루에 있던 돈까지 가나안에서 도로 가져온 우리가 어찌 은금을 훔치겠느냐고 합니다. 누구에게서든 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청지기는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자루를 엽니다. 열 번을 열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 가니라"(13절). 슬픔을 참지 못해 겉옷을 찢어 버리는 몸짓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이 동작을 한 사람은 둘이었습니다. 빈 구덩이를 본 르우벤과 피 묻은 채색옷을 받아 든 야곱입니다. 형들이 찢었다는 말은 그 장에 없습니다. 이제 그 형들이 찢습니다.

청지기는 잔이 나온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리라고 미리 말해 두었습니다(10절). 요셉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17절). 막내만 두고 떠나면 되는 길이 두 번이나 열렸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아우 하나를 버려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바로 그 길입니다.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전부 성으로 돌아와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16절). '찾아내다'로 옮긴 히브리어 마차는 이 장에 이미 여러 번 나온 말입니다. 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느냐를 두고 오가던 그 말로, 유다는 이제 하나님이 찾아내신 것을 말합니다.

유다가 잔을 훔쳤다고 자백한 것은 아닙니다. 훔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죄는 오래전 동생을 구덩이에 넣고 애굽으로 팔려 가게 한 일입니다.

이것을 무서운 소식으로만 읽지 마십시오. 창세기 42장에서 형들은 자기들끼리 말했으나, 이제 유다는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 앞에서 말합니다. 죄를 찾아내시는 손은 끝내시려는 손이 아니라 돌이키시려는 손입니다.

내 아버지

18절부터 유다가 가까이 나아가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한 사람이 이어 간 가장 긴 호소입니다. 그가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노인이고 노년에 얻은 막내를 사랑한다고, 그 아이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죽는다고 합니다(20, 22절).

28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창세기 37장에서 피 묻은 옷을 받아 든 야곱의 말이고, 그 옷을 보낸 사람이 형들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말을 바로 그 아우 앞에서 되풀이합니다. 자기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그는 모릅니다.

아버지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고 말했습니다(27절). 라헬이 낳은 둘만 아들로 세는 말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의 미움이 자라난 자리가 이 편애였습니다. 유다는 그 말을 원망 없이 옮기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30절). 아버지의 편애는 그대로인데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부르는 말도 연설 끝에 가서 바뀝니다. 줄곧 “우리 아버지”라 하던 그가 32절과 34절에서는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그리고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대신하여’로 옮긴 히브리어는 타핫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숫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졌을 때 쓰인 그 말입니다. 동생을 팔아 값을 챙기려던 손이 이제 동생의 자리에 자기를 밀어 넣습니다.

유다는 대신 서겠다고 말했을 뿐, 실제로 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리아 산의 숫양은 이삭을 대신했으나, 그 자리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로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요 10:18) 그 자리에 실제로 서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벧전 3:18). 모리아 산의 숫양도, 창세기 44장의 유다도 그 자리를 멀리서 비출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세월이 지나 없어진 줄 알았던 일 하나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만 이름 불러 아뢰십시오.

기도

저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줄 알았던 일을 오늘 찾아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손이 끝내시려는 손이 아니라 돌이키시려는 손인 것을 믿습니다. 찾아내신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5일 · 창세기 45장

나는 요셉이라

오늘의 본문

창세기 45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
>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
>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
> **5절**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
>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
>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
>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
>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 44장에서 유다가 아우를 대신해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말한 다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요셉이 더는 참지 못합니다. 곁에 선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소리 내어 웁니다. 형들 앞에서 감춰 온 이름을 그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그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는 시종하는 자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러고는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만큼 크게 웁니다 (2절). 감춘 것을 열면 남들이 듣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도 문을 열었습니다.

첫마디는 짧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3절). 유다의 긴 말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막 들은 사람이, 이름을 밝히자마자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형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라 하고 다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고 합니다. 나는 요셉이라고만 해도 되었을 자리에서 그는 판 자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붙입니다.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로 형들을 몰아세우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말이 근심하지 마소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어 그는 같은 말을 세 번 합니다. 두 번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하고, 세 번째에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까지 말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책임을 없애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판 것은 형들이고 그 죄책도 형들에게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일을 두고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은 이 두 말을 나란히 두고 어느 하나도 지우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하는 때는 흉년이 든 지 이 년이 된 해입니다. 아직 다섯 해는 밭갈이도 추수도 못한다고 그는 말합니다(6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말은(7절),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집안을 앞에 두고 한 말입니다. 자기를 판 사람들에게 요셉이 건넨 첫 위로가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였습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

말을 마친 요셉이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웁니다. 15절은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였다고 적습니다. 말이 나오기까지 눈물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는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수레와 길 양식과 옷을 주어 형들을 돌려보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붙입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24절).

집으로 가는 길에 서로 네 탓이라고 따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합니다. 이미 끝난 일을 자기들끼리 다시 파헤칩니다.

가나안에 올라간 형들이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해하다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합니다(27절).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28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셉은 화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값을 치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겪은 일을 견뎠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던 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첫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20:19)였습니다. 자기를 판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 요셉의 말이,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그 자리를 멀리서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요 20:20). 그 평강에는 치르신 값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내게 있었던 아픈 일 하나를 두고, 사람의 잘못은 잘못이라 말하되 그 일에서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손을 구하십시오.

이미 정리된 일을 놓고 누구 탓인지 다시 따지고 있다면, 오늘 그 길에서 다투기를 그치십시오.

기도

먼저 평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실을 정확히 말하되 그 사실로 사람을 몰아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용서받은 일을 다시 파헤치며 다투지 않게 하시고, 저를 먼저 보내신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버린 자들에게 평강을 먼저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6일 · 창세기 46장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의 본문

창세기 46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칠십 명이었더라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온 집안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곧장 가지 않고 브엘세바에 들러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이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장의 가운데는 함께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이고, 끝은 고센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브엘세바에 들렀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아들을 만나러 서두르는 길에 거기 멈춰 섭니다.

멈출 까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은 부끄러운 이야기로 남았고(12장), 이삭은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26:2). 같은 길을 두고

야곱에게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경험으로 짐작했다면 그는 이 길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밤의 이상 대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경험으로 오늘을 단정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길입니다.

함께 내려가겠고 반드시 올라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4절).

하나님은 내려가는 길을 막지 않으시고 그 길에 함께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내려감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사백 년 뒤의 출애굽이 이 한 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대개 내려가는 일 자체보다 다시 올라오지 못할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답하셨습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는 말씀도 붙어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임종을 지키리라는 약속입니다.

이름 하나씩 적힌 일흔 명

그 말씀을 받고 야곱이 내려갑니다. 이어지는 명단은 깁니다. 애굽에 이른 야곱의 집 사람이 모두 칠십 명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은 집안이 이때는 일흔 명이었고, 성경은 그 일흔을 뭉뚱그리지 않고 이름을 하나씩 적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아픈 이야기에서 나온 이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12절).

고센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고, 야곱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고 말합니다.

더 깊이 내려가신 예수님

하나님은 함께 내려가시겠다고 하셨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내려감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빌 2:7-8). 우리와 함께 내려가신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보다 더 아래까지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빌 2:9).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는 약속은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닿습니다.

기도

함께 내려가시는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려가는 일보다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것임을 아십니다. 급한 걸음 앞에서도 주께 묻는 자리를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보다 더 깊이 내려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7일 · 창세기 47장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47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집안이 고센 땅에 자리를 잡습니다. 늙은 야곱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 앞에 섭니다. 이 장에는 두 이야기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한 집안이 보호받는 이야기와, 한 나라의 백성이 모든 것을 잃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왕을 축복한 노인

야곱이 바로 앞에 나아가 그를 축복했다고 7절은 적습니다. 물러날 때에도 다시 축복하고 나옵니다. 가진 것으로는 견줄 수 없는 두 사람입니다. 한쪽은 가장 부유한 나라의 왕이고 다른

쪽은 기근을 피해 아들에게 의탁하러 온 노인인데, 축복하는 쪽은 노인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벧엘에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28:14).

바로가 나이를 묻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형을 피해 도망쳤고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길에서 잃었고, 딸이 욕을 당했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긴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는 그 세월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을 부르는 말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같은 기근, 두 자리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고센에 정착시키고 식구 수대로 양식을 공급합니다. 고센은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입니다(46:34). 그 거리가 이 집안을 지켰습니다. 애굽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았다면 사백 년 뒤에 한 민족으로 남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같은 장 뒤쪽은 읽기가 편치 않습니다. 기근이 길어지자 애굽 백성이 돈을 다 내고, 가축을 내고, 땅을 내고, 마침내 자기 몸까지 팔아 바로의 종이 됩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이 정책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본문은 평가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다고만 적습니다. 요셉을 변호할 필요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근이 길어지면 사람이 어디까지 내어놓게 되는지를 이 장면이 말없이 보여 줍니다.

마지막 부탁

야곱은 애굽 땅에서 십칠 년을 더 삽니다(28절).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요셉의 손을 자기 허벅지 아래에 넣게 하고 부탁합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센은 좋은 땅이었고 그는 거기서 잘 지냈습니다. 뼈를 묻을 곳만은 다른 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서 값을 다 치르고 산 그 굴입니다.

히브리서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적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히 11:13).

그들이 바란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히 11:16). 예수님은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 14:3). 야곱이 뼈로 가리킨 돌아갈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오늘의 적용

지나온 세월을 미화하지 말고 험했다고 말하되, 그 입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하십시오.

살아남으려고 하나씩 내어 주다가 정작 내어 주면 안 될 것까지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점검하십시오.

기도

나그네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나온 세월이 험했다고 정직하게 말하면서도 돌아갈 곳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 지내는 자리에서도 제가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8일 · 창세기 48장

손을 엇바꾸어 얹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48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야곱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늙은 아버지가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그 손이 엇갈립니다. 창세기 27장에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 섰던 사람이 이번에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되어 손을 얹습니다.

두 손자를 아들로 삼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는 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되리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고 애굽 제사장의 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언약 백성의 지파가 됩니다. 훗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것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이 말 끝에 야곱은 에브랏 길에서 죽어 거기 묻은 라헬을 떠올립니다(7절). 라헬이 낳은 아들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들이는 자리였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야곱은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형 므낫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팔을 엇바꾸어 얹은 것입니다. 요셉이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 합니다. 손을 바로잡으면 축복도 바로잡힌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야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19절).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의 이삭은 만져 보고 옷의 향취까지 맡아 보고도 분별하지 못했는데, 이 장의 야곱은 보지 못하면서도 알았습니다. 그의 손을 이끈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야곱은 손을 옮기지 않았고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서열을 넘어서는 선택

야곱 자신이 둘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맏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역사는 처음부터 사람의 서열대로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엇갈린 손을 늙은 아버지의 변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집안에서 하나님이 줄곧 일해 오신 방식입니다. 바울은 훗날 이 순서를 놓고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에서 나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서 난다고 말했습니다(롬 9:11-12).

다만 형은 버림받고 동생은 택함받았다는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야곱은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크게 되리라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하신 길로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축복하는 말 가운데 야곱이 자기 인생을 요약합니다.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47장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 세월이 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손자들 앞에서는 기르셨고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두 말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얍복 나루에서 밤새 씨름했던 그분을 이제 건지신 분으로 부릅니다.

야곱은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을 부르며, 같은 숨으로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를 부릅니다(15-16 절). ’건지신’은 값을 치르고 되찾을 때 쓰는 말입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값으로 내어 주셨고(막 10:45), 제자들이 꾸짖던 어린아이들을 안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습니다(막 10:16). 서열도 자격도 묻지 않으신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적용

지나온 세월을 요약하는 말을 오늘 한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기르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문장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기도

건지시는 하나님, 제 눈이 어두워도 주의 뜻이 제 손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한 순서대로 되지 않은 일 앞에서 주께서 얹으신 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제 생애를 돌아보는 날, 기르시고 건지신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9일 · 창세기 49장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오늘의 본문

창세기 49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야곱이 열두 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겠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은 덕담과 거리가 멉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아픈 진단이, 어떤 아들의 분노에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 가운데 한 아들을 두고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축복이면서 진단입니다

맏아들 르우벤을 야곱은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부른 다음,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더 무겁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거룩한 표징을 무기로 삼았던 일이 여기서 값을 치릅니다. 임종의 자리라고 해서 야곱은 덮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좋은 말만 남기는 것이 사랑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28절은 이 말 전부를 축복이라 부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흩어지리라는 말은 뒷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 흩어짐이 그들을 온 지파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두었습니다(신 33:10). 하나님은 그 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흩어짐을 섬김으로 바꾸셨습니다.

유다에게 온 말

넷째 유다에게 오자 말이 달라집니다. 형제들이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하고, 사자에 비기고, 규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규는 다스리는 자의 지팡이입니다.

유다는 맏이도 아니고 흠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창세기 38장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물러서야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낀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 자리에서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불리며 길고 넉넉한 축복을 받지만(22-26절), 왕의 계보는 유다에게로 갑니다.

창세기 29장에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넷째를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며 붙인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자리에서 이 계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10절에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 낱말의 뜻을 두고는 예로부터 견해가 갈립니다. 사람 이름으로 보는 쪽도 있고, 그에게 속한 자라는 뜻으로 읽는 쪽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갈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절이 유다 지파에서 다스리는 이가 나오실 것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요한은 그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았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계 5:5). 그 말을 듣고 요한이 본 것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계 5:6). 예수님은 그렇게 규를 잡으셨습니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축복의 말 한가운데서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18절).

말을 마친 그는 조상들이 묻힌 굴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하고(29-32절),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속이고 도망치던 사람, 밤새 씨름하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조용히 발을 모읍니다. 33절은 그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적습니다.

그가 기다린 구원은 그와 함께 묻히지 않았습니다. 규는 유다를 떠나지 않았고, 그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히 7:14).

기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제게 내려진 흩어짐을 섬김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자리에서 계보를 이어 오신 손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로 오셨으나 어린 양으로 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50일 · 창세기 50장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오늘의 본문

창세기 50장 (개역개정) — 흐름의 뼈대가 되는 절입니다. 전체는 성경을 펴서 통독해 주십시오.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맞추고

3절 사십 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의 본문 한눈에 보기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야곱의 장례가 치러지고, 아버지가 없어진 자리에서 형들의 오랜 두려움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평생 붙들고 있던 한 문장을 여기서 가장 분명하게 말합니다. 창세기는 그 문장을 지나 관 하나로 끝납니다.

애굽이 칠십 일을 곡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을 맞춥니다.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습니다. 이방 나라가 한 히브리 노인을 위해 애곡한 것입니다. 장례 행렬은 더 컸습니다.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땅의 원로들이 따라나섰고 병거와 기병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요단 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서 칠 일을 애곡하니, 그 땅 사람들이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며 그곳을 아벨미스라임이라 불렀습니다(11절).

그 큰 행렬이 닿은 곳은 가나안의 굴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 둔 막벨라 굴입니다(13절).

아버지가 죽자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형들이 말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이미 근심하지 말라고 했고, 그 뒤로 열일곱 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도 그 용서를 믿지 못한 채 열일곱 해를 산 셈입니다.

형들은 먼저 사람을 보내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네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웁니다. 창세기에서 그가 우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열일곱 해를 함께 살고도 형들이 여전히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그 앞에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형들이 뒤이어 친히 와서 엎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열일곱에 꾼 꿈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바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대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19절).

갚을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였으니 갚을 힘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뿌리에는 내가 판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요셉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어지는 말이 창세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20절).

이 문장을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형들이 한 일이 사실은 좋은 일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하려 하였다는 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악은 악이었고 책임도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형들의 '해하려 하였다'와 개역개정이 '바꾸사'로 옮긴 말은 히브리어로 같은 낱말입니다. 형들이 악을 뜻한 바로 그 일에서 하나님은 선을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일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겪은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하는 고백이지, 남의 아픔 앞에서 함부로 던질 말이 아닙니다. 요셉도 긴 세월이 지나고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야 이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는 것입니다. 21절은 그가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다고 적습니다. 갚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먹이겠다고까지 합니다.

관 하나로 끝나는 책

요셉은 백십 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봅니다.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큰 행렬과 함께 곧바로 가나안에 묻혔습니다. 요셉의 몸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문장은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야기로 시작한 책이 관 하나로 끝납니다.

그 관은 묻히지 않았습니다. 사백 년 뒤에 메고 나가려고 남겨 둔 관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 모세가 그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출 13:19). 히브리서는 이것을 요셉의 믿음으로 셉니다(히 11:22).

창세기는 관으로 끝나고 성경은 빈 무덤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의 관은 약속을 기다리는 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오늘의 적용

갚아야겠다고 벼르고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판결의 자리를 오늘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내 아픔을 두고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되, 남의 아픔 앞에서는 그 말을 함부로 꺼내지 마십시오.

기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십 일 동안 창세기를 지나오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봅니다. 제가 판결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제게 있었던 일을 두고 주님의

손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을 남겨 두고 약속을 기다린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빈 무덤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맺는 말

관 하나를 남겨 두고

쉰 날을 걸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루씩 읽으신 분도 있고, 몇 날을 몰아 읽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오셨습니다.

돌아보면 창세기에는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기다리지 못하고, 제 손으로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들 위로 한 가지가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너진 자리마다 하나님이 다시 붙드셨고, 그 줄기가 쉰 장을 관통해 이어졌습니다.

창세기는 웅장한 결말 대신 관 하나로 끝납니다. 요셉은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말을 남기고 애굽에서 입관되었습니다. 묻히지 않은 관이었습니다. 그 관은 여러 세대를 기다렸고, 모세가 출애굽의 밤에 그것을 메고 나갔습니다(출 13:19).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야 세겜 땅에 묻혔습니다(수 24:32). 히브리서는 이 기다림을 요셉의 믿음으로 셉니다(히 11:22). 창세기가 끝나는 자리는 이야기가 닫히는 자리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기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유다의 손에 남겨 둔 규, 요셉이 남긴 관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덮는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붙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이 책을 덮으셨다고 읽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창세기 다음은 출애굽기입니다. 요셉의 관을 메고 나가는 밤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창세기를 다시 펴 보십시오. 같은 본문이 다르게 읽힐 것입니다. 말씀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나온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쉰 날 동안 읽으신 말씀이 읽고 덮은 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실패한 자리를 붙드시고, 약속을 끝까지 이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실나눔교회 목사 김동오

지은이

김동오

총신대학교 신학과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2000년 노원성실교회를 개척해 2018년까지 목회했고, 건강 문제로 담임 목회를 내려놓은 뒤 한영교회에서 7년간 부목사로 사역했다. 2026년 5월 성실나눔교회를 개척해 다시 개척의 자리에 섰다. 그해 7월 6일부터 쉰 번의 새벽 동안 하루 한 장씩 창세기를 전했고, 이 책은 그 새벽의 말씀을 글로 다듬은 것이다.

새벽묵상과 주일 설교는 유튜브 채널 **성실나눔교회**(youtube.com/@성실나눔교회)에 올리고 있다.

매주 목요일에는 목회자를 위한 뉴스레터 **성경연구노트**(maily.so/biblenote)를 보낸다.

판권

하루 한 장, 창세기
쉰 날 동안 읽는 창세기 묵상

지은이 김동오
펴낸곳 성실나눔교회
펴낸날 2026년 9월

이 책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값을 받고 팔거나 내용을 고쳐 배포할 수 없습니다.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이며,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 김동오, 2026